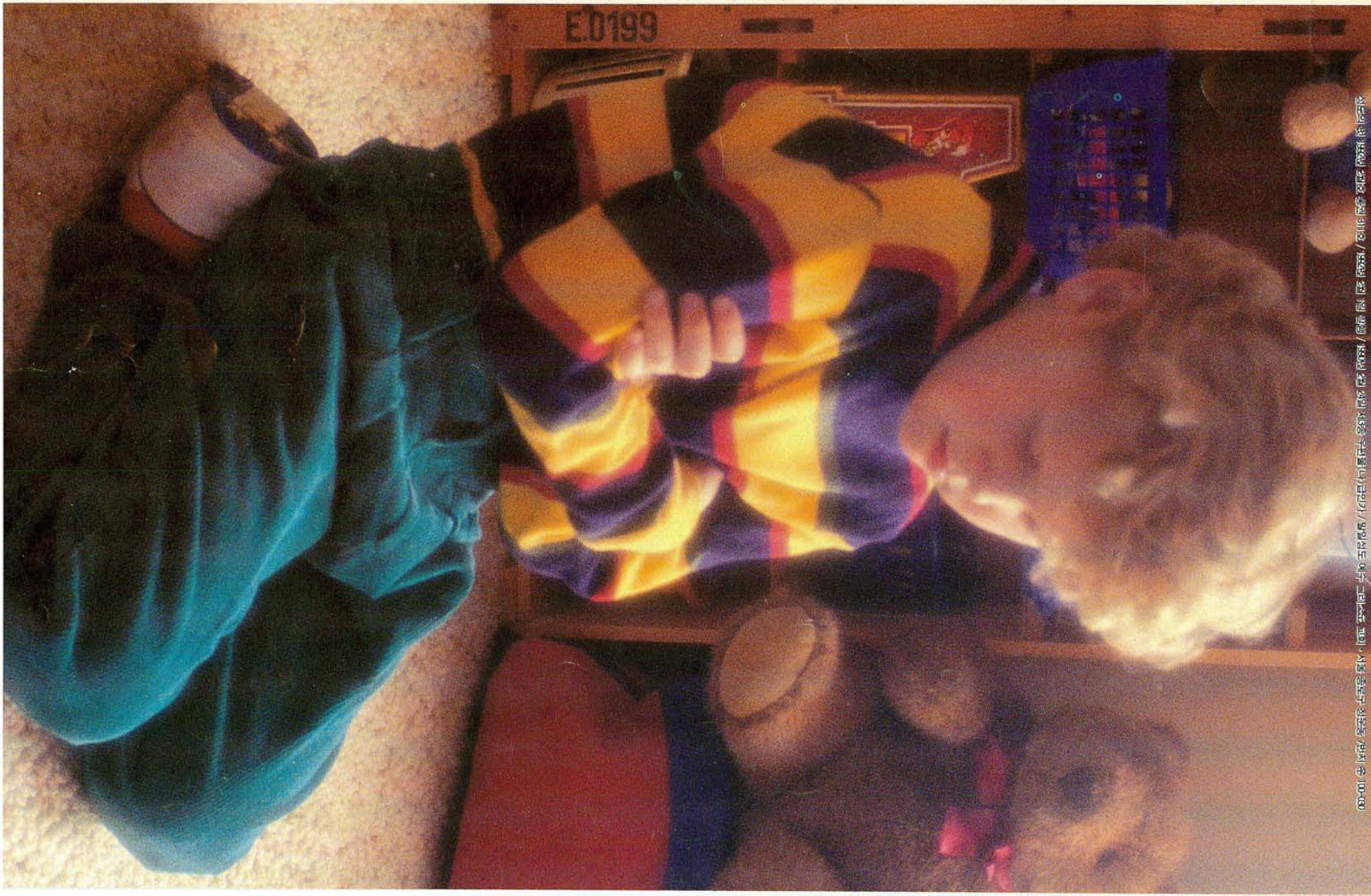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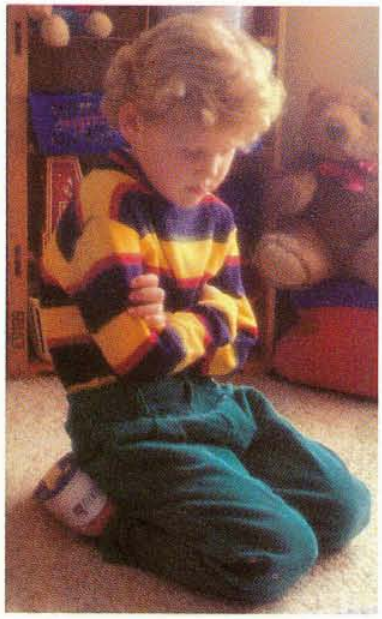
말일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

성도의벗

2 1992



성도의 벗 1992년 2월호 통권 제1호 / 1992년 2월 1일 발행 / 1990년 2월 2일 제3종 우편물(나)급인가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 서울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100-00



— 표지 설명 —

부모는 "자녀에게 기도할 것과 주 앞에서 올바르게 생활할 것을 가르쳐야" 한다.
(교리와 성약 68 : 28 참조)
"*성도의 벗*" 31쪽
"기도하는 방법" 및 52쪽
"기도—또 다시 시도하십시오" 참조

— 어린이란 표지 —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달 어린이란에서
기도에 대한 기사 몇 가지를
읽게 될 것입니다.

성도의벗 2 1992

일 반

대관장단 메시지 : "나의 명예의 전당"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2

다시 찾은 아버지 세르헤 엠 아인사 8

장벽 뒤에서 재롤드와 노마 데이비스 12

텔레비전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 제닌 알 플레이크 22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브르스 에이 밴 오덴 26

경전에서 주제를 얻음 : 제2차 국제 예술 경진 대회
글렌 엠 레오날드 36

청 소 년 란

기도하는 방법 31

영원 리차드 엠 롬니 32

"저는 몰몬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예세니아 메네세스 파야 44

빈민굴에서의 기도 데비 펄스 46

정 기 특 별 기 사

애독자 편지 1

방문 교육 메시지 : 사랑—생활 양식 25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메시지 : 기도 샘 케이 시마부꾸로 장로 65

교회 및 지역 소식 66

어 린 이 란

몰몬경 이야기 : 앨마의 백성들이 달아남 50

기도 : 또 다시 시도하십시오 에이치 버크 피터슨 장로 52

노래 : 경건은 사랑입니다 매기 올라슨 53

즐거움을 함께 나눔 앤진스 켐톤 54

심심풀이 56

함께 나누는 시간 : 완이가 기도하기를 배움 57

베어를 위한 기도 비키 에이치 버지와 마이크 버지 60

다니엘과 사자굴 트린 팍스톤 62

꼬마 친구들을 위하여 :
하나님 아버지께 이야기함 줄리 와델 64

1992년 2월호

*성도의 벗*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한국어판 출판물임. 본 잡지는 한국어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월간—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사모아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영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중국어, 통가어, 포루투갈어, 프랑스어, 및 핀란드어.
격월간—인도네시아어, 타이어, 타히티어.
계간—아이슬란드어.

대관장단 : 에즈라 태프트 벤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심이사도 평의회 : 하워드 더블류 헌터, 보이드 케이 패커, 마빈 제이 애쉬튼, 엘 톰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제임즈 이 파우스트, 닐 에이 맥스웰,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조셉 비 워스린, 리차드 지 스코트
고문 : 렉스 디 피네가, 찰스 디디에이, 존 알 래서터, 로버트 이 웰즈

통 권 : 제311권, 제29권, 제2호
등 록 : 1967년 10월 5일, 라—3166
발행일 : 1992년 2월 1일(월간지)
발행인 : 한 인 상
편집인 : 홍 무 광
발행소 : •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 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 광화문 우체국 사서함 616호
• 우체국 온라인 010041-0024704-11
• 은행 지로 번호 3001543
인쇄인 : 영 인쇄 주식회사 이 세 용
© 1991년 재단법인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판권 소유
성도의 벗 1년 구독료는 5,000원 입니다. 권당 500원이며, 성도의 벗 해외 구독일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등) 12,000원, 2지역(필리핀, 중국 등) 16,200원, 3지역(중동 등) 23,200원, 4지역(중남미 등) 26,000원이며 우송료는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카드 번호를 출판부(☎ 738-6832, 청운동)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The *SONGDO-UI POT*(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ah 84150.
Second-clas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ubscription price $9.00 a year. $1.00 per single copy. Thir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When ordering a change,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 changes cannot be made unless both the old address and the new ar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Church Magazines,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Subscription information telephone number 801-240-2947.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s to *SONGDO-UI POT* at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ah 84150, United States of America
© 1991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nternational Magazine 92982 320
Printed in Korea 2/92

애독자 편지

왕국을 굳건히 세움

저는 프랑스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새로워진 모습의 *레뚜알*(불어 판)을 얼마나 좋아하고 있는지 여러분에게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눈부시게 변모한 *레뚜알*은 대단히 환영받고 있습니다. 교회 잡지를 다양한 언어로 출판하여 왕국을 굳건히 세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닐 엘 앤더슨
프랑스 보르도 선교부장

더욱 다양해짐

저는 *리아호나*(포르투갈어 판)가 아주 읽을만한 잡지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기사를 읽고 큰 유익을 얻게 됩니다. 표지 사진도 좋고 그 밖의 사진 선택도 좋았습니다.

가능하면 어린이란이나 그밖의 난에 지난 시대의 예언자들의 사진도 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은 이 예언자들이 누구였으며 그분들이 어떻게 어떤 이유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전세계 곳곳에 있는 성전 사진들도 아름다울 것입니다. 이러한 성전에 관한 모든 것, 누가 어떻게 지었으며 주변 경관, 특히 정원은 어떤 모습인지를 보고 싶습니다.

태버내클 합창단에 관한 기사도 자주 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음악을 매우 좋아하므로 합창단에 매혹을 느끼는데 특히 태버내클 합창단에 더 큰 매혹을 느낍니다. 저는 태버내클 합창단이 1981년 "아메리카를 위한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남아메리카 어린이들을 돕기 위해 이곳 브라질에서 노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음악이라는 은사를 받은 덕분에 교회에서 성장했습니다. 저는 개척 시대의 성도들이 교회의 아름다운 찬송가를 부르면서 가꾸었던 그 영적인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태버내클 합창단에 관한 기사와 합창단 사진이 연차 대회 특집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흑백으로 나온 사진뿐이었습니다. 합창단에 관해 더 상세히 알고 싶습니다.

테일러 샘웨이즈
빌라 마리아 와드
상파울로 북 스테이크
브라질

편집 노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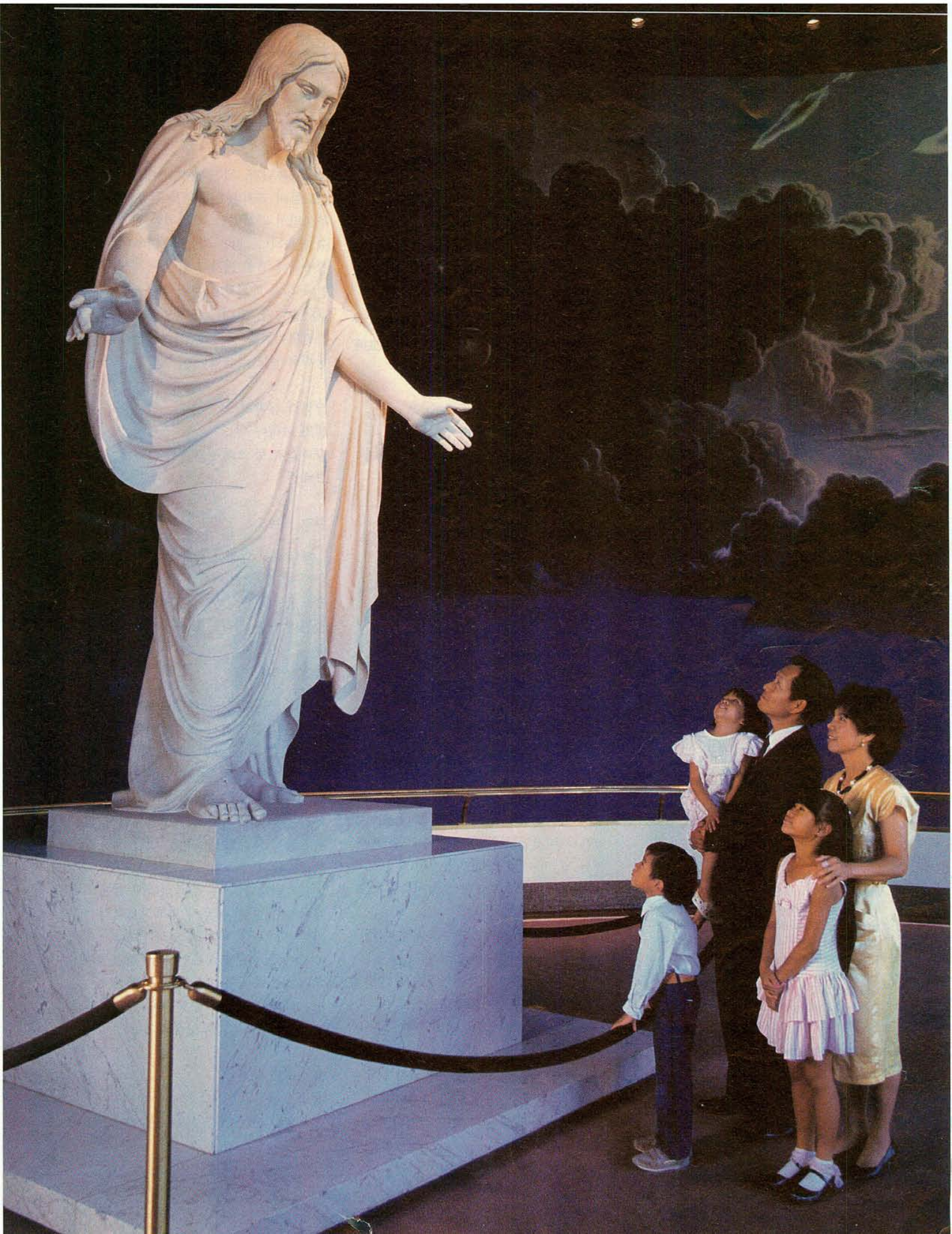
태버내클 합창단의 역사적인 1991년도 동 유럽 및 소련 여행에 관한 특집을 앞으로 싣겠습니다. 전세계에 있는 성전에 관한 기사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인도

거의 30년간 교회 회원으로서 저는 출퇴근시 항상 리아호나(스페인어 판)*를 읽고 있습니다.* 1991년 1월호를 읽으면서 저는 성령이 제게 총관리 역원들의 대회 메시지는 현대에 주어진 계시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메시지를 성찬식에서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아르헨티나의 마 델 플라타에 있는 제너럴 산 마틴 지부의 지부장으로서 저는 영의 지시에 따라 연차 대회의 메시지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예언자 리하이가 그의 천막 밖에서 발견한 방향구인 *리아호나*와 이 잡지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휘오리노 베라르
제너럴 산 마틴 지부
아르헨티나 마 델 플라타 스테이크



"나의 명예의 전당"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실 유일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야말로 명예의 전당의 상좌를 차지하실 분입니다.

어느 맑은 겨울날 저는 친구와 함께 뉴욕의 맨하탄과 교외 지역인 웨스트체스타를 연결하는 고속도로 위를 차를 타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인간의 놀라운 기술로 이룩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그곳의 명소를 일일이 지적해 주었습니다.

갑자기 양키 스타디움이 눈 앞에 들어 왔습니다. 제가 소년 시절에 그토록 좋아하던 야구 선수들의 고향에 온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소년들이 수천의 열광하는 관중들 앞에서 훌륭히 야구 경기를 치뤄내는 선수들을 우상처럼 받들어 왔습니다.

겨울이라서 경기장 주변에 있는 주차장은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관중들도 땅콩장사와 매표원들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직까지도 베이비 루드, 루 게리그, 죠 디마지오 같은 대 선수들에 관한 추억이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 유명한 야구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 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술과 묘기에 관한 기록은 영원히 남게 됩니다.

"주의 계명에 순종"했던 아담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인생도 야구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의식 구조 내부에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 참된 지도자를 위해 마련된 나름대로의 위대한 인물에 대한 명예의 전당을 갖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자신을 지도해 온 많은 사람들 중에서 자기 나름대로 설정한 위대한 인물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를 것인지를 시험받는 사람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시험은 외적인 장식품이나 세상적인 재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깊은 사고의 성역 속으로 받아들이는 지도자는 우리가 진리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고 의무를 다하는 것을 존재의 근본으로 삼게 하며, 일상생활의 일을 변형시켜 우리가 되고자 열망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 폭넓은 인생관을 갖게 해준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가 당분간은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인물을 선정하는 자격을 갖춘 심판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처럼 명망있는 자리에 누구를 지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구를 지명할까요? 대상자는 많고 경쟁은 치열합니다.

저는 그 명예의 전당에 지상의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의 이름이 기억되도록 추천하는 바입니다. 모세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은 주의 계명에 순종하였더라"(모세서 5 : 5) 아담은 자격을 갖춘 분입니다.

인내를 통해 완전하고 의로운 모범을 보인 욥의 이름도 지명되어야 합니다. 욥은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증인이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나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고"(욥기 16 : 19~20),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욥기 19 : 25). 욥도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사도 바울로 더 잘 알려진 사울을 지명할 것입니다. 그의 설교는 영혼을 먹이는 만나와 같고 그가 평생을 통해 봉사한 업적은 모든 사람의 귀감이 됩니다. 이 용감한 선교사는 만천하에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로마서 1 : 16) 바울도 자격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의 간증은 듣는 이의 심금을 울려 줍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마태복음 16 : 13~16) 베드로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시대에 다른 장소에 살았던 니파이는 다음과 같이 간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이든 명하시는 대로 이룰 수 있는 방편을 미리 마련치 아니하시고는 명하지 않으심을 제가 아오니, 주께서 명하신 대로 가서 행하겠나이다."(니파이일서 3 : 7) 니파이는 분명히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오를 사람입니다.

제가 지명하고 싶은 사람이 또 있는데 바로 예언자 요셉 스미스가 그 사람입니다. 요셉 스미스의 신앙과 믿음과 간증은 그가 카테지 감옥으로 순교를 당하러 가면서 한 말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는 도살장에 끌려 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내 마음은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께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대하든지 털끝만치도 부끄러운 일이 없도다."(교리와 성약 135 : 4) 요셉 스미스는 자신의 피로써 간증을 인봉하였습니다. 요셉 스미스도 자격이 있습니다.

여성 중에서도 영웅을 지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충실한 마음으로 인해 훌륭한 모범을 보여 주었던 룻이 있습니다. 훌륭한 두 아들을 잃고 슬픔에 잠겨 있는 어머니 나오미의 심정을 아는 룻은 충성심을 가진 자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룻기 1 : 16) 룻은 이 말이 진심에서 우러나왔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 주었습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이름입니다.

저는 그가 지닌 신앙과 믿음과 간증으로 인하여 예언자 요셉 스미스를 지명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존경받는 룻의 후손 중에는 또 다른 한 이름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나사렛의 마리아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완전한 사람의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누가복음 1 : 38) 마리아가 이같이 성스럽고 역사적인 사명을 받아들임으로써 모든 인류에게는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 확실히 마리아도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영웅으로 받드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거룩한 구세주의 사명에 대한 간증이라고 대답드립니다. 이러한 신뢰와 간증은 인생이라는 천에 수놓은 황금실과도 같이 귀중합니다.

그러한 영웅들이 목숨까지 바쳐 가며 성실하게 받들어 온 영광의 왕인 구속주는 누구입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예언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으며, 천사들도 예수님이 지상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신다는 것을 예고하였습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음성이 들렸습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 : 10~11)

바로 이 예수님이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누가복음 2 : 40)라고 기록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고 복음 전도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능숙한 말솜씨에도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를 물리치셨으며, 아버지께서 주신 의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를 지키기로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을 했으며, 이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참으로 깨끗하고 이타적이며 고귀한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몸소 일하시고 사랑하시고 봉사하셨으며, 눈물도 흘리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 주시고 가르치시며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일어나시어 영생에 이르셨습니다.

인간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유일한 이름인 나사렛 예수야말로(사도행전 4 : 12 참조) 명예의 전당의 상좌를 차지하실 분입니다.

"명예의 전당에 오를 만한 영웅들을 열거해서 무얼 하겠다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하실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질문에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랬듯이 순종하고, 욥처럼 인내하며, 바울처럼 가르치고, 베드로처럼 증거하고, 니파이처럼 봉사하며 예언자 요셉처럼 자신을 바치고, 룻처럼 효도하고, 마리아처럼 영예롭게 되고 그리스도처럼 생활한다면 우리는 새롭게 태어나게 되며 모든 권세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낡아빠진 자아와 실망, 의심, 의혹, 실패 등을 던져 버리고, 희망과 신앙과 용기와 기쁨으로 충만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합시다. 우리가 하지 못할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너무 무거운 책임도 없으며 부담스러운 의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모범이 되는 사람을 찾는 데 반드시 지나간 과거나 아주 오래전 사람들에게로만 눈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한가지 예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크레이크 수드베리 형제님은 현재 솔트레이크시티에서 매우 유명한 위치를 점하고 계시는 분인데, 저는 그 형제님이 몇 년 전에 오스트레일리아 멜보른 선교부로 부름을 받아 떠나기 직전에 어머니와 함께 저의 사무실로 찾아온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크레이크의 부친인 프레드 수드베리는 오지 않았습니다. 크레이그의 어머니는 25년 전에 프레드와 결혼하였으나, 남편인 프레드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좋아하지 않았으며 교회에 속하지도 않았습니다.

크레이그는 그의 부모님을 깊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언젠가는 그의 아버지가 성령에 감화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크레이그는 제게 간절히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저는 그러한 소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간구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레이그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성스러운 부름에 순종하십시오. 매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가끔 아버지께 개인적으로 편지를 보내 형제님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 깊은 물속에서 오른 손을 높이 치켜 들고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침례 기도를 드리는 크레이그처럼 위대한 영웅은 없습니다.

이유를 전하십시오."

크레이그 형제님은 저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하고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크레이그의 어머니를 18개월 동안 뵙지 못했는데, 어느날 그의 어머니가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이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들은 성실히 노력하여 선교부에서 중책을 맡아 일하고 있으며 매주 우리에게 편지를 쓰는 일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 남편이 처음으로 성찬식에서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모두 제가 교회의 회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아들 크레이그가 선교사로 떠난 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들의 편지를 받고 저는 마음에 큰 변화를 느꼈습니다. 제가 그 편지를 하나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우리는 훌륭한 구도자의 가족에게 구원의 계획과 해의 왕국에서 승영에 이르는 축복에 관해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가정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저는 그 왕국에서 아버지와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저에게는 해의 왕국이 될 수 없습니다. 전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제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나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선교사로 일하는 아들 크레이그 올림."

"그런 다음 남편 프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아내와 아들 크레이그를 사랑합니다. 결혼 생활 26년 만에 저는 교회의 회원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저는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러한 진리를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아들이 선교사로 간 후에 비로소 이것을 행동에 옮길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 크레이그가 선교 사업을 마칠 때 주님의 복음 선교사인 아들이 주는 마지막 침례자가 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지닌 것으로 말미암아 한 젊은 선교사가 하나님께서 현대의 기적을 이루시는 데에 참여하였던 것입니다. 극진히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갖겠다는 목표가 아버지와의 사이를 가로 놓는 수천 킬로미터 거리의 장벽 때문에 난관에 봉착하게 되었으나, 사랑하는 마음은 넓고도 푸른 태평양을 넘었으며 마음에서 마음으로 거룩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바닷가 깊은 물속에서 오른손을 높이 치켜 들고 다음과 같은 성스러운 침례 기도를 드리는 크레이그처럼 위대한 영웅은 없습니다. "프레드 수드베리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를 침례하노라. 아멘."

어머니의 기도와 아버지의 신앙과 아들의 봉사가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명예의 전당에 들 자격이 있습니다.

하늘 높은 곳으로부터 다음 말씀이 생생하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나 주는 나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자비로우며, 은혜를 베푸나니, 끝까지 의와 진리로 나를 섬기는 자를 존귀하게 하기를 기뻐하노라.

"저희 상은 클 것이요, 저희 영광은 영원하리로다"(교리와 성약 76 : 5~6)

그와 같이 생활할 때, 우리 자신도 참되고 영원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도록 보장받을 것입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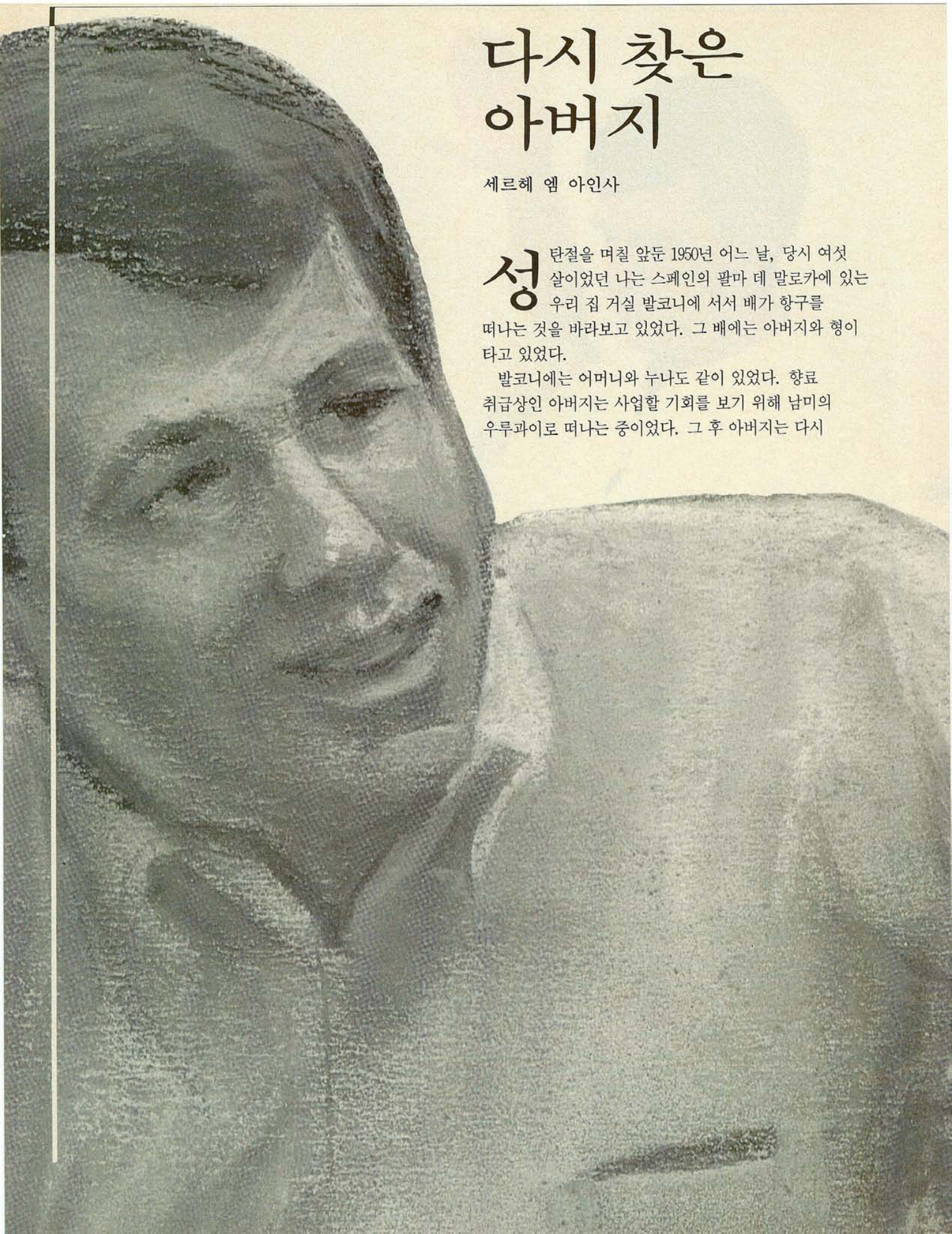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1.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 우리의 마음이 진리를 향해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고,
   - 의무를 다하는 것을 존재의 근본으로 삼게 하며,
   - 일상적인 것을 변형시켜 우리가 열망하는 것이 되게 한다.

2. 경전에는 아담, 욥, 바울, 베드로, 니파이, 요셉 스미스, 룻, 마리아, 그리고 기타 우리의 영웅이 될만한 여러 사람들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다.

3. 한편 이러한 사람들은 더 위대한 영웅인 하나님의 아들이자 우리의 구세주이며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충실히 섬겼다.

4.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굳건한 신뢰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변함없는 간증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시 찾은 아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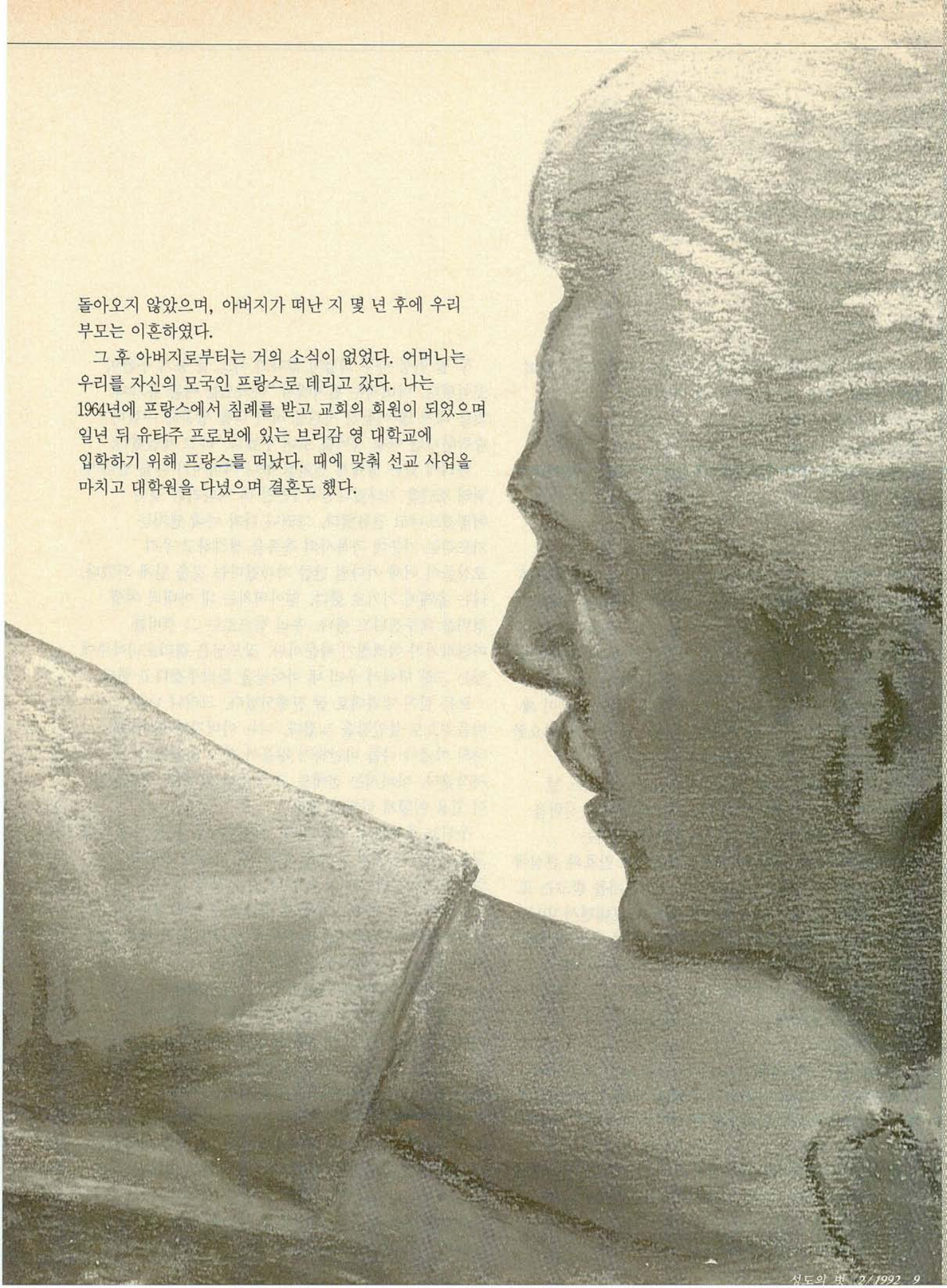
세르헤 엠 아인사

성탄절을 며칠 앞둔 1950년 어느 날, 당시 여섯 살이었던 나는 스페인의 팔마 데 말로카에 있는 우리 집 거실 발코니에 서서 배가 항구를 떠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배에는 아버지와 형이 타고 있었다.

발코니에는 어머니와 누나도 같이 있었다. 향료 취급상인 아버지는 사업할 기회를 보기 위해 남미의 우루과이로 떠나는 중이었다. 그 후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으며, 아버지가 떠난 지 몇 년 후에 우리 부모는 이혼하였다.

그 후 아버지로부터는 거의 소식이 없었다. 어머니는 우리를 자신의 모국인 프랑스로 데리고 갔다. 나는 1964년에 프랑스에서 침례를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었으며 일년 뒤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프랑스를 떠났다. 때에 맞춰 선교 사업을 마치고 대학원을 다녔으며 결혼도 했다.



그때까지 아버지에 대한 생각은 나의 마음속에서 거의 사라졌으나 결혼 후 계보 사업을 추진하고 싶어지면서부터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나에게 조상들을 위한 계보 사업과 성전 의식을 시작할 때가 오리라는 내용과 이 일들을 완수하기 위한 "방편과 기회"도 주어질 것이라는 말씀이 실려 있었다.

내가 교회에 다니게 된 후 당시 프랑스로 간 형은 아버지가 우리 아인사 가문에 관한 내력과 조상들의 이름 및 날짜 등을 수집해 놓은 것이 있다고 알려줬다. 나는 증조부모까지의 계보에 관한 자료를 얻을 생각으로 아버지에게 자세한 자료를 보내 달라는 글을 써서 보냈다.

아버지는 나에게 다시는 귀찮게 굴지 말라는 요청과 함께 일반적인 사항만 적어 보내 주었다. 나는 기분이 꽤 나쁘고 화가 났으나 우리 가족의 역사에 관한 일에 필요한 "방편과 기회"가 주어지기를 계속 기도드렸다.

우리가 애리조나주에 살 당시인 1986년 3월 어느 날 아버지에게서 다시 편지가 왔다. 당시 어머니는 시력을 잃게 되어 가족이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다. 나는 양아버지가 어머니에게 베푸는 정성스러운 간호와 관심에 위안을 받았으나 아버지의 비난이 섞인 편지를 받고는 또 다시 기분이 상했다. 나는 편지를 되돌려 보내면서 비난이 섞이지 않은 유쾌한 편지를 받지 않는 한 더 이상 편지를 보내지 않겠다고 답하였다. 3주가 안되어 아버지의 회답이 왔는 데 그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죽게 되면 네 형을 통해 소식을 전해 주겠다. 다시는 네게 편지하지 않겠다."

편지를 받은 지 9개월이 지났다. 나는 다시 축복사의 축복문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드렸다. 영을 통해 응답이 왔는데, 아버지에게 사과해야 한다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섯 장이나 되는 장문의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는 그 해에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하고 지난번 편지에 내가 그릇된 행실을 보인 것에 대한 사과의 말도 포함되어 있었다. 편지를 부친 후 나는 주님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렸다.

두 달 이상 아무 회답이 없다가 어느 날 등기 우편이 도착했다. 아버지는 편지에서 "다가오는 여름 휴가때 열흘 내지 열 이틀간 시간을 내어 나를 방문해 주겠니? 승락한다면 여행 경비를 보내 주겠다."라고 제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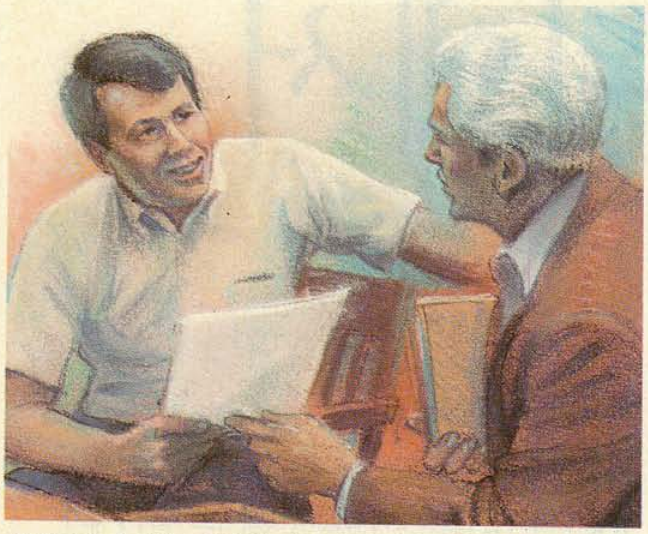
파리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하니 아버지가 나를 만나기 위해 35년을 기다렸다면서 1년만 더 기다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권유했다. 그러나 나와 아내 앤지는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사의 축복을 생각하고 우리 조상들이 이제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올해에 가기로 했다. 양아버지는 내 아내의 여행 경비를 대주겠다고 했다. 우리 힘으로는 그 경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장모님은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그분 댁에서 우리 네 아이들을 돌봐주겠다고 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나는 마음속으로 불안감을 느꼈다. 나는 아버지가 어머니나 나의 아내나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다. 이번에는 이 일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

우리는 출발하기 며칠 전에 헌신적인 두 분의 가정 복음 교사로부터 신권의 축복을 받고서야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나는 그 고마움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그분들은 나의 아내가 나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도록 축복하였으며 내가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들여 어떤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있도록 축복해 주었다.

우리가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 도착했을 때 나는 다소 불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다가 아버지가 새 어머니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다. 아버지는 나를 보고서 반갑게 지팡이를 흔들었다. 나도 손을 흔들었다. 세관 공무원의 말에 따라 검사를 마치고 세관 문을 나오니까 아버지가 내게 다가 왔다. 우리는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추었다. 우리가 공항 터미널을 떠날 때 성령은 나에게 내 옆에서 걷는 분은 내가 추측했던 것보다 훨씬 다른 사람이라고 말해 주었다.

우리는 처음 며칠을 같이 웃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친해지는 등 서로를 아는 데 보냈다. 우리 부부는



아버지에게 젊은 시절의 경험과 어머니에게 구애할 때의 일 등을 녹음해 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우리 부부는 아버지에게 우리 집안의 계보 및 역사 기록을 달라고 부탁할 적합한 말을 찾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드렸다.

그 날은 아버지의 여든 한번째 생신이었다. 아침 식사때 선물을 열어 본 다음 아버지는 잠시 나갔다가 뭔가 수건 밑에 숨겨 가지고 돌아 왔다. 아버지는 내게 갑 하나를 주면서 말했다. "이것이 많은 세월이 지난 오늘 네게 주는 번번치 못한 것이란다. 너를 두고 떠나온 것을 보상하기 위해 뭔가 해야 겠다고 생각했었단다." 그 갑 속에는 예쁜 시계가 들어 있었다.

삼십 분 후 우리는 위층에 있는 아버지의 떡갈나무 책상 주위에 앉아 녹음기에 공테이프를 끼고 아버지에게 조상에 관해 말해 달라고 부탁했다. 아버지는 몇 분간 말하다가 끊고서는 "이렇게 하는 것은 시간 낭비야."라고 말했다.

나는 깜짝 놀랐다. 나는 이렇게 기도했다. "주님, 제발 도와 주십시오. 여러 해 동안 이 순간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에게 "왜 낭비라고 말씀하십니까?"하고 물었다.

아버지는 "기록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이지."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서류철을 꺼내 여러 이름이 적힌 종이 한 장을 내게 주었다. "여기에 나의 부친쪽 조상들 이름이 적혀 있다. 가져 가거라."라고 아버지가 말했다. 나는 급히 훑어 보았다. 조부와 증조부와 고조부 및 먼 친척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쪽은 어떻게 됐나요? 그쪽 가족 이름도 적어 두셨습니까?"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 봤다.

"네 할머니쪽 계보는 중요하지 않아."하고 아버지는 어물어물 나의 질문을 일축해 버렸다. 내가 할머니가 안 계셨으면 아버지도 이 세상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아버지는 "그래, 그것이 그렇게도 중요하다면 네게 주마."하셨다. 아버지는 낙서처럼 이름이 적힌 몇 장의 종이가 든 봉투를 내게 주었다. "그래, 모든 것을 다 가져라."하면서 아버지는 그 서류철을 내 손에 쥐어 주었다.

눈물이 시야를 가리는 가운데 나는 서류철을 열고 먼 친척들의 이름을 읽어 갔다. 그 안에는 나의 할머니, 할아버지와 그 밖의 사람들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소리내어 울었다. 지난 21년간 오늘을 위해 여러 번 기도를 드렸었다. 주님은 내 간구를 들으시고 필요할 때에 바로 응답해 주신 것이다.

"왜 우느냐?" 아버지가 물었다.

"여기 있는 것이 행복해서 그래요." 내가 대답했다.

이 때 아버지도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머리를 내 어깨에 기대고 내 손을 잡고서 "미안하다"고 말했다. "내가 그 동안 한 일 미안하게 됐다. 내가 잘못했어. 나는 네 애비 구실도 못하고 지냈다. 지난 여러 해 동안 네가 누구인지 알아 볼 생각도 안 했었단다. 용서해 주겠니?"

"물론 용서하고 말고요. 그건 이미 용서하였고 잊어버렸어요." 나는 흐느끼면서 말했다. 아버지를 껴안았을 때 영이 내게 조용히 속삭였다. "나 주는 내가 용서할 자를 용서하거니와 너희에게는 모든 사람을 용서할 것을 요구 하노라."(교리와 성약 64 : 10)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느꼈다. 이별과 외로움과 갈등의 세월은 녹아 버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아들을 찾았고 나는 마침내 아버지를 찾은 것이다. *

세르헤 엠 아인사 형제는 애리조나주 프레스콧 스테이크의 윌로우 크리크 와드 회원이다.

장벽 뒤에서

재롤드와 노마 데이비스

동독의 교회

1945년~1989년, 고립된 성도들

제2차 세계 대전 마지막 주였던 1945년 2월 13일 밤과 14일 밤에 연합군 폭격기의 공습이 드레스덴 중심부를 파괴하였다. 바스러진 돌들 사이의 어딘가에 교회의 알트스타트 지부 예배당이 서 있었다. 그것은 아직도 동독의 교회에 남겨진 것에 대한 또 다른 폭격이었다.

거리가 조용해지자마자 공습으로 불타버린 지부의 회원들은 예배 장소가 보존된 노이스타트 지부의 회원들과 만나기 위해 엘베강 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다리를 가로질러 갔다. 그러나 이 예배당은 곧 수많은 집없는 피난민들의 수용소로 개조되었으므로 교회 회원들은 두 개의 조그만 방에서 모임을 가져야 했다. 지부는 거의 대부분 어린이와 젊은 어머니, 그리고 노부부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전쟁에서 살아 남은 지부의 형제들은 아직 군대에 속해 있거나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

"전기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는 물을 얻으러 2킬로미터를 걸어가야만 했다. …사흘 후에 빵을 실은 트럭이 왔다. …우리는 통조림 공장에서 돌더미를 헤치고 통조림 제품들을 파내는 것을 허락받았다. …젊은 사람들은 나이든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해주는 봉사대를 조직하였다. 우리는 지부 회원들의 가정을 방문하였으며 영적인 시간과 노변의 모임을 가졌다. 우리는 코트를 입고 담요를 두른 채로 모임에 참석하였다. …주님이 그의 백성을 잊지 않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드렸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것은 강한 신앙과 내적인 조화의 시기였다."(에디트 크라우제가 제자에게 보낸 편지, 1990년 2월 2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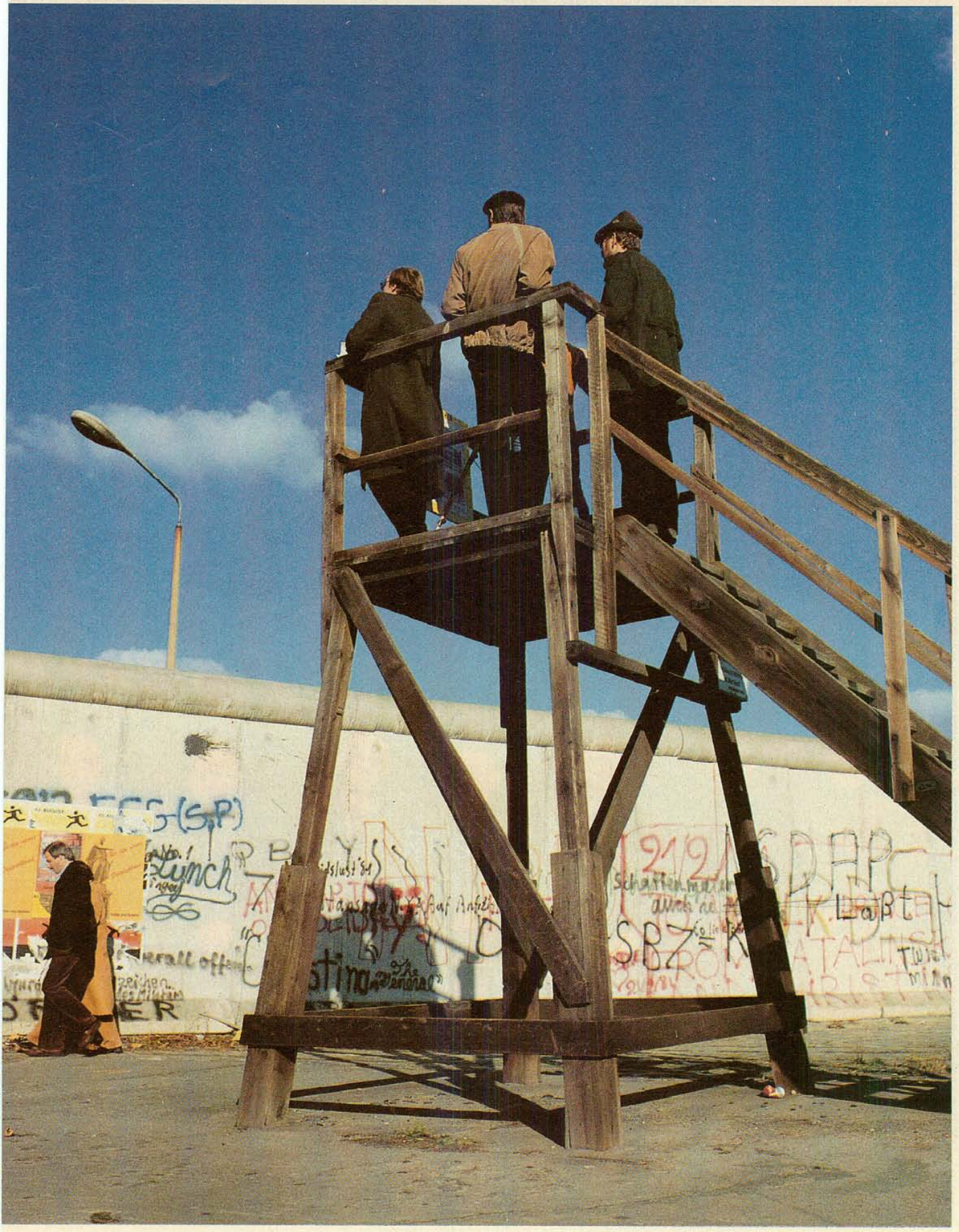
이러한 황폐가 미친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남부 독일, 삭소니주의 교회 조직들이 유타주의 많은 와드들보다 더 오래되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드레스덴에는 젊은 시절에 개종했던 칼 지 메이세르가 첫번째 지부장으로 봉사했던 1855년 이래로 계속 운영되어온 지부가 있다. (1875년에 메이세르는 유타주 프로보에 있는 브리감 영 아카데미—현재는 브리감 영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

두 개의 드레스덴 지부의 경험은 많은 점에서 동독 전역에 퍼져 있는 30개 이상의 다른 지부들의 경험을 대표한다.

재건이 시작됨

전쟁이 끝난 직후에 선교사들은 전쟁으로 피폐해진 교회의 재건을 돕기 위해 서부 유럽에 도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러시아군 점령 지역에 살던 회원들은 헛되이 기다렸던 것이다. 후에 독일 민주 공화국이 된 그 지역의 성도들은 외국에서 오는 복음 선교사들을 보는 데 40년 이상의 시간이 걸렸다. 회원들은 교회에서 고립되었다.

전쟁 직후 몇 년 동안 그 지역 교회 지도자들의 가장 긴급한 과제는 흩어진 회원을 찾아 돌보고 남아 있는 지부들을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지부를 재건하는 데에는



Kirche Jesu Christi
der Heiligen — der — letzten Tage
Kirche
Jesu Christi
Gottesdien

왼쪽 : 드레스덴 지부의 지도자들, 1950년
아래 : 엘바강을 가로지르는 드레스덴 전경

아래 : 해롤드 엘 그레고리 선교부장이 1955년 드레스덴 지부 100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젊은 신권 소유자와 복음 선교사의 힘이 요구되었지만 여성과 어린이와 나이든 회원들이 수행해야만 했다. 그러나 신권 소유자들이 전쟁과 포로 수용소에서 돌아오기 시작하자마자 그들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부름받았다.

발터 크라우제는 1945년 7월 2일에 폴란드 국경 인근의 코트부스에 있는 수용소에서 석방되었다. 여러 명의 교회 회원들이 그곳에 있는 피난민 수용소에서 살았다. 11월 말경에 리차드 란락 선교부장은 크라우제 형제에게 많은 지부에서 도움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가 선교 사업을 떠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다.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가겠습니다."하고 크라우제 형제가 대답하였다.

"1945년 12월 1일에 나는 호주머니 속의 20 마르크와 마른 빵 한 덩이, 그리고 허브 차 한 병을 갖고 선교 사업을 떠났다. 한 형제가 나에게 전쟁에서 돌아오지 못한 아들의 겨울 코트를 주었다. 신발 제조업자인 또 다른 형제는 신발 한 켤레를 주었다. 그리고 나는 두 장의 셔츠와 손수건과 두 켤레의 양말을 갖고 선교 사업을 시작하였다."(만프레드 슈제가 편집한 미출판의 자서전 모음집, 3쪽)

운송 수단은 구하기가 어렵거나 아예 없었다. 크라우제 형제는 교회의 여러 지부를 방문하기 위해 50킬로미터 이상의 거리를 12시간 내지 13시간 동안 걷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전히 엘리 폴신 자매 같은 많은 회원들을 찾고 돌보아 주어야 했다.

"저는 1946년에 아이들과 어머니를 데리고 〔현재는 폴란드에 있는〕 스테틴에서 왔다. …어느 날 두 명의 선교사가—그 중 한 명은 그로이찌히에서 온 발터 보메 형제였다.—우리를 다시 한 번 더 교회와 연결되도록 도와주려고 왔다. 그들은 우리가 교회 지부가 있던 슈베린으로 이사하도록 격려해 주었다. 나는 거기에서 일자리를 구하였다.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겪은 후에 가족을 슈베린으로 데려올 수 있었다. …여러해 동안 우리는 아파트를 얻을 때까지 방 한 칸에서 살았다. 그리고 1949년 12월의 크리스마스 하루 전 날에 남편이

폐기 제링하우센 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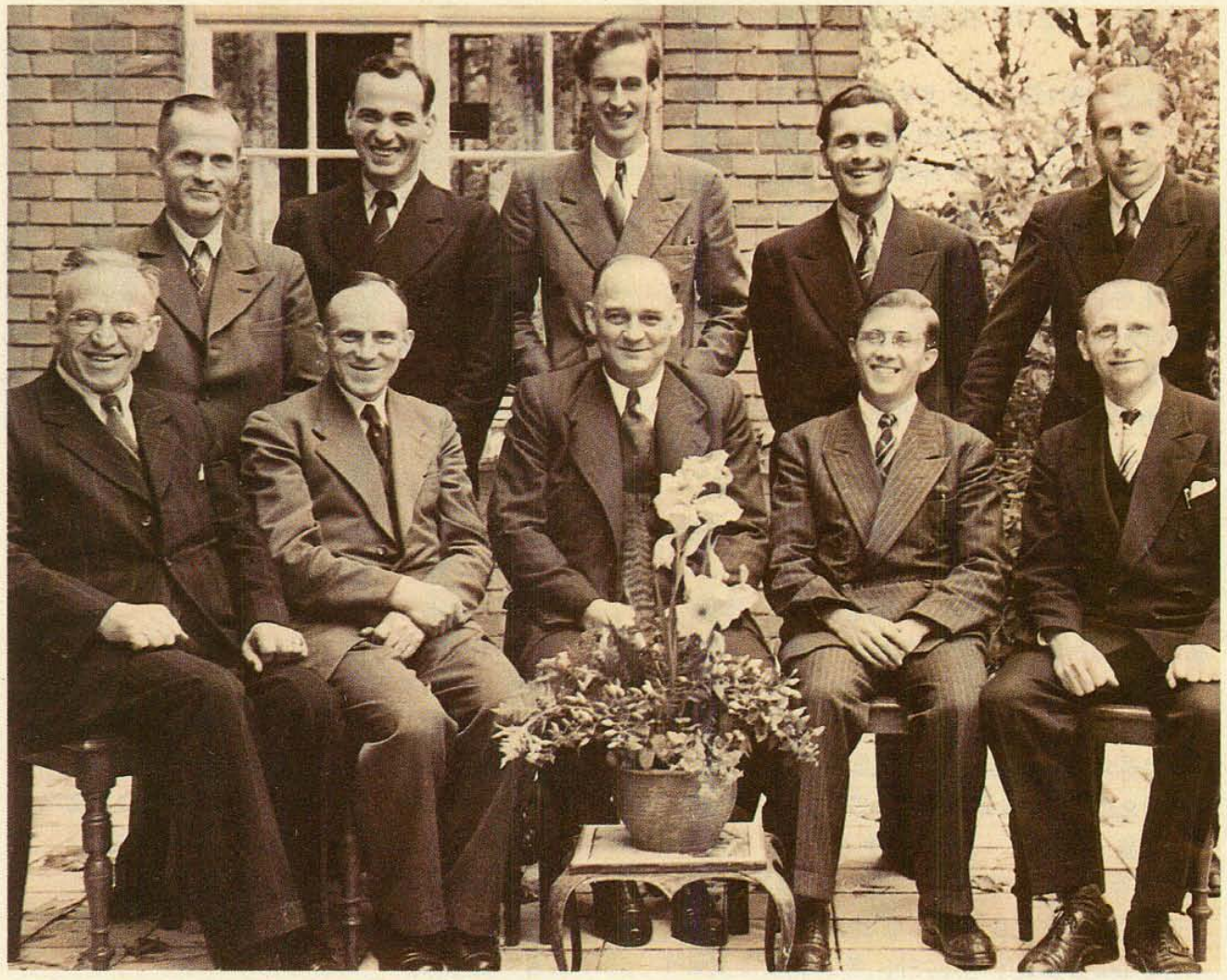
수용소에서 돌아왔다."(만프레드 슈제가 편집한 미출판의 자서전 모음집에서, 18쪽)

이베하르드 가불러 형제는 그의 선교 사업에 대해 이렇게 묘사했다.

"재정적인 지원이 전혀 없이… 저는 주님이 저를 필요로 하신다면 그분이 저를 지원해 주실 것이라는 온전한 확신을 가졌습니다." 가블러 형제는 38개월 동안 "그 당시 동독 선교부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을 도왔다. "조직에서 거의 모든 역원직을 선교사들이 맡고 있었다. 우리는 지부장, 〔청소년〕 지도자, 주일학교 지도자, 초등협회 역원이었으며 모든 조직의 교사까지 맡았습니다."(만프레드 슈제가 편집한 미출판의 자서전 모음집에서, 29쪽)

왼쪽 위 : 베를린의 브랑덴부르크 문
오른쪽 : 1955년에 동독에서 일하는 자국 선교사들.
아래 : 지역 지도자들과 함께 한 앞 줄 가운데가 전후에 동독의 첫번째 선교부장인 발터 스토버.
앞, 왼쪽부터 : 프리쯔 레니히, 발터 파스만, 스토버 선교부장, 하인쯔 힝켈, 안톤 라리슈. *뒤, 왼쪽부터* : 브루노 슈라이터, 에리히 셸너, 발터 킨트, 한스 봇쳐, 발터 크라우제

요아킴 예스슈미트 사진, 인터내셔널 제공



헤르베르트 슈라이터의 경험은 많은 독일 말일성도들이 겪은 경험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슈라이터 형제는 1929~1930년의 경제적인 불황기에 2년 동안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좋은 직장을 그만두었다. 그는 귀환하여 1937년에서 1941년 사이에 쳄니쯔(후에는 칼-막스-스타트)에서 지부장으로 봉사하다가 군대에 입대하였다. 군에 있는 동안 그는 짤즈부르그(오스트리아) 지부에서 주일학교 회장으로 봉사하였다.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46년에 슈라이터 형제는 가족을 떠나 다른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는 "물론입니다! 저는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런 특원을 갖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대답하였다.(만프레드 슈제가 편집한 미출판의 자서전 모음집에서, 46쪽)

철의 장막 뒤쪽에 있는 교회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경험있고 성숙한 사람들이 필요했으나, 그러한 사람들은 흔히 가족이 있었다. 포울 슈미트는 그의 선교 사업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였다. "전후에 태어나 자란 여러분들이 1946년 여름에 41살의 나이로 50개월 동안 계속될 선교 사업에 부름받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아내와 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를 뒤에 남기고 떠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까?"(만프레드 슈제가 편집한 미출판의 자서전 모음집에서, 50쪽)

그러나 경험과 원숙함이 선교사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아니다. 슈미트 형제는 이렇게 기록했다. "우리가 만일 경험만 신뢰했다면 1945년에서 46년 사이에 요구되는 경험을 한 사람이 거의 없었으므로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원들은 또한 영감에 의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는 그것을 담대하게 따랐고 마침내 성공하였습니다."(만프레드 슈제가 편집한 미출판의 자서전 모음집에서, 51쪽)

신앙의 노고

지부를 세운다는 것은 종종 문자 그대로 실제적인 건축을 의미한다. 드레스덴에 있는 선교사들이 소련 사령부에 모임을 할 장소를 부탁하자 그들은 공습으로 불타버린 독일군 건물에 있는 장교용 옛 카지노를 내주었다. 대부분 여자와 어린이와 노인인 회원들은 음식을 거의 먹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직접 힘든 노동을 하였다. 예를 들면, 한 번은 8명의 자매와 2명의 집사와 나이든 2명의 형제들이 6미터 길이의 강철로 된 들보를 건물 안으로 겨우 들여다 놓고 그것을 바닥에서 3미터 떨어진 받침대 위로 용케 들어 올렸다.

그 건물은 다음 40년 동안 드레스덴 지부와 와드를 위한 모임 장소로 사용되었다. 1977년에는 그 예배당에서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말씀을 하셨고 1980년대 말에는 레이맨인 세대인 브리감 영 대학교의 학생 그룹이 공연을 하였다. 1988년에 드레스덴 와드가 새로운 예배당으로 옮겨가자 회원들은 낡은 건물의 일부를 선교사를 위한 안락한 아파트로 개조하였다.

독일 민주 공화국 남단에 있던 드레스덴의 교회 회원들처럼 슈베린 북부의 회원들도 지부 장소를 찾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0년 동안 그들은 단칸 셋방에서 모임을 갖다가 그 다음엔 한 가족의 거실로 옮겨 갔다. 1956년에 그들은 땅을 조금 살 수 있었다. 그러나 교회는 토지를 소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부장의 이름으로 구입해야 했다. 그곳에는 아파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땅 위에 있는 건물을 헐도록 허락받지 못했다. 그러나 건물이 없는 쪽에 건물을 짓는 것은 허락받았다. 또 그들은 건축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8미터 떨어진 시 외곽의 옛 군대 막사를 헐도록 허락받았다.

그런데 그들이 트럭 23대분의 건축 재료를 건물 부지에 싣고 온 후에 건축 허가가 거부되었다. 금식과 기도 후에야 그들은 그 땅 위에 있는 낡은 마굿간을 집회실로 개조하도록 허락받았다.

개축에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건축 재료가 필요하였다. 그러나 회원들은 주님의 도움으로 이러한 것을 구하는 데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다.(만프레드 슈제가 편집한 미출판의 자서전 모음집에서, 22쪽 참조) 1958년 1월 5일에 독일 북 선교부장단 보좌인 헨리 부크하트가 이전의 마굿간을 슈베린 지부의 집회실로

왼쪽 위 : 베르다우 지부의 상호부조회 자매들, 1956년
아래 : 1977년에 활동한 베르다우 지부 청소년들
오른쪽 : 1973년 대회의 괴릿쯔 지역 초등협회

헌납하였다.

1973년에 그 지부는 건물 확장 허가를 받았지만 이것은 건축 재료를 구하는 그 어려운 과정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복음 루터 교회 건물 책임자의 도움으로 건축용 벽돌을 많이 구하게 되었는데 그는 말일성도의 근면과 성실을 인정하게 되었다. 다른 건축 재료들은 회원들이 그것을 신청하기 위해 길게 늘어선 대열에서 기다린 후에야 적은 양을 구할 수 있었다. 작업 일정 때문에 지부의 형제들이 줄에서 기다릴 수 없었으므로 지부장의 아내가 재료를 구해오는 책임을—그것은 손수레로 재료들을 건물터까지 날라와야 함을 의미함에도 불구하고—맡았다. (만프레드 슈제가 편집한 미출판의 자서전 모음집에서, 24쪽 참조)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독일 민주 공화국 내의 거의 모든 지부에서 반복되었다. 예를 들면, 공화국의 남쪽 중심부인 라이프찌히에서는 회원들이 모임을 가졌던 개조된 건물을 비워야 했을 때 그 지부는 낡은 영화관을 개조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다. 회원들은 수개월 동안 그 일을 하였다. 1968년에 그들이 훌륭한 헌납식을 계획하고 있을 때 헤르베르트 슈라이터 지부장은 그 건물이 시 당국에 의해 몰수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였다. 그 지부가 건물의 필요 조건을 모두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 유일한 이유였다. 그러나 회원들은 마침내 그들의 새로이 개축된 예배당을 사용할 수 있다는 허락을 다시 얻어냈다.

새로운 장벽

이와 동시에 독일 민주 공화국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교회 회원들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1961년, 베를린 장벽이 세워지기 전에는 동독의 교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서독에 있는 교회와 연락하였다. 서독에 있던 선교부장은 동독에서 봉사하는 복음 선교사를 관리하였다. 벽이 세워진 후 선교부장의 방문은 주로 일 년에 두 번씩 열리는 라이프찌히 박람회 기간으로 제한되었는데 그때는 서독 방문자들이 입국을 위한 비자를 항상 받을 수 있었다. 이러한 때에는 회원들이 항상 서로 만나기 위해서 또 국외에서 온 교회 역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라이프찌히로 몰려들었다. (1963년부터 1966년까지 선교부장으로 봉사했던 조엘 에이 테이트 형제는 예외로 여겨지는 데 그는 선교사들과 성도들을 방문하기 위해 더욱 자주 그 나라로 들어갈 길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었다.)

1961년 이전에는 서 베를린에서 때때로 선교사 대회가 열렸으며 독일 민주 공화국의 선교사와 회원들은 이따금씩 배낭에 공과 교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러한 일은 공식적으로 정부에 의해 승인되지 않았지만 국경에서의 교환이 공식적으로 항상 거절되지는 않았다. 그때 그 지역의 성도들은 공과 교재의 내용을 타자해서 각 지부에 필요한 충분한 수의 사본이 만들어질 때까지 복사를 하였다. 1961년 이후에는 교회의 공식 발행물에 대한 이러한 접촉조차도 점점 더 제한받게 되었다. 보이젠에 있는 요아킴 알브렉트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불크하르트 선교부장으로부터 정부의 승인받지 않은 모든 종류의 종교 자료, 책, 교재 등을 폐기시키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저는 비탄에 잠겼습니다. 여러 해에 걸쳐 저는 작지만 훌륭한 교회 자료 도서관을 운영해 왔는데 그러한 것이 공식적으로 승인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난로 앞에 앉았습니다. *안돼*하고 저는 제 자신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러나 마침내 저는 그토록 어렵게 모았던 모든 책과 자료들을 태웠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두 주쯤 후에 비밀 경찰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승인받지 않은 출판 자료들을 찾기 위해 집을 뒤졌습니다.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영감받은 지도자와 그들의 권고를 따르는 데 대한 훌륭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기쁨의 시간

도서 자료가 제한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중반까지는 국내의 복음 선교사 프로그램도 더 이상 허용되지 않았다. 단지 나이 들고 은퇴한 부부들만 선교 사업을 하도록 허락받았으며 그런 때조차도 전도 체계는 엄격히 제한되었다. 지역 교회 활동도 제한되었다. 많은 지부의 지부장들이 경찰에 모든 모임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신청서에는 연사들의 이름과 화제를 써 넣어야 했다. 또한 모임에는 비밀 경찰 요원들도 참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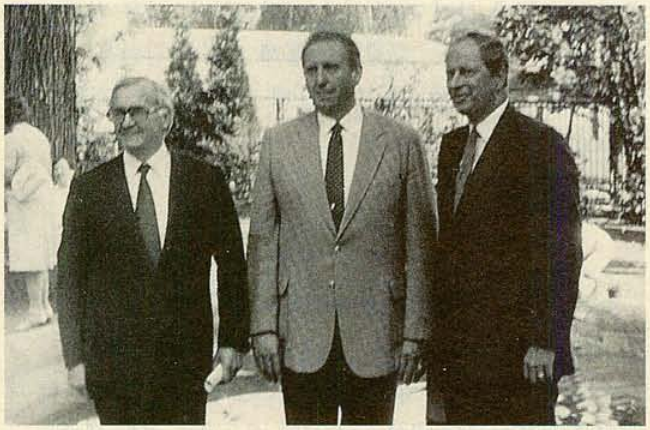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기는 독일 민주 공화국에 있는 교회로서 가장 어려운 시기로 여겨질 수 있음에도 회원들은 그 기간을 기쁨조차 느끼며 아주 정답게 회상한다. 외부의 압력이 그들 모두를 더욱 몰아칠수록 그들은 서로에게, 그리고 교회 및 주님에게 더욱 가까와졌다. 모임 참석율은 높았다. 가정 복음 교육과 가정 방문 교육은 헌신적이고 성실하게 수행되었으며 회원들은 서로 서로 돌보고 도왔다. 십일조와 헌물은 충실하게 바쳐졌다.

고립된 기간에도 불구하고 어떤 회원들은 충실하게 남아 있었다. 현재 드레스덴 와드의 감독인 군터 슐츠는 그 기간 동안 고립된 회원들—어떤 사람은 폴란드에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독일 민주 공화국의 외딴 곳에 있었다—을 찾고 돌보는 데 많은 시간을 바쳤다. 상부 실레지아의 나이든 자매도 이들 중 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 자매님을 방문하였습니다."라고 슐츠 형제는 회상한다. "마침내 그분은 난로 뒤로 가서 끈으로 묶은 스타킹을 가져와 여러 겹으로 묶인 매듭을 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음 그분은 두 손을 저울처럼 만들어 묶여 있던 스타킹 속의 돈을 달아보았습니다. 그

위 : 1982년의 드레스덴 대회에 참석한 십이사도 평의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 중앙, 지역 대표인 한스 비 링거 장로, 왼쪽, 그리고 유럽 책임자인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아래 : 1985년에 독일 프라이버그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수천 명이 그곳을 방문하였다.



자매님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것이 제 십일조예요. 25년 동안 모은 거예요. 신권 지도자가 언젠가는 우리 집에 다시 오리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더 밝은 날

이 어려운 시기 동안 후에 독일 민주 공화국에 있는 교회를 위한 전환점이 되었다고 입증된 한 사건이 일어났다. 1968년 11월 9~10일에 독일 북 선교부의 스탠리 디 리스 선교부장과 그의 아내가 십이사도 정원회의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와 함께 독일 민주 공화국을 방문하였다. 크라우제 자매는 이렇게 회상한다. "몬슨 장로가 너무 젊어서 우리는 그를 선교사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부장은 방문 올 때 흔히 선교사들을 함께 데려오기 때문이었습니다."(크라우제의 편지, 5쪽)

폴란드 국경 가까운 괴리쯔에서 가진 모임에서 몬슨 장로는 동독의 성도들에게 그들이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누렸던 모든 축복들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었다.(*엔사인*, 1989년 5월호, 50~51쪽 참조) 독일 민주 공화국의 "냉전"에 대한 외적인 상황은 즉각적으로 바뀌어질 것 같지 않았으나 미묘한 변화가 그 나라의 교회 내부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서히 일어났으나 다음의 20년에 걸쳐 가속적으로 변화되었다.

1975년 4월 27일, 드레스덴과 마이센 사이의 엘바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꼭대기에서 몬슨 장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독일 민주 공화국을 헌납하였다. 1977년 8월 24일에 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님이 드레스덴 예배당에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예배당은 전쟁이 끝난 후에 장교용 카지노를 바꾼 것이었다. 1982년 8월에 프라이버그 스테이크가 세워졌다. 1983년 4월 23일에 프라이버그에서 성전 부지가 파여지기 시작했다. 1984년 6월에 라이프찌히 스테이크가 세워졌으며 1985년에 독일 프라이버그 성전이 헌납되었다. 프라이버그, 성전 옆, 라이프찌히, 쯔빅코이, 드레스덴 및 칼-막스-스타트에 성도들을 위한 새로운 예배당을 짓도록 허락되었다.

마침내 1988년 10월, 50년만에 다시 한번 선교부를 세우도록 국외로부터 복음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다. 독일 민주 공화국 전체에 더 밝은 날의 징조가 장엄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제롤드와 노마 데이비스 부부는 독일 민주 공화국의 드레스덴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였다. 데이비스 형제는 데이비스 자매가 인문학 부교수로 있는 유타주 프로보의 브리감 영 대학교의 독일어 교수이자 게르만어 및 슬라브어 과의 과장이다. 그들은 유타주 프로보 오크 힐즈 스테이크의 오크 힐즈 제2와드 회원이다.

장벽 뒤의 교회

1945~1990년

1946년

발터 스토버 형제는 동독 선교부에서 전후의 첫번째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에즈라 태프트 벤슨 장로는 독일 전역과 폴란드 일부 지역에 복지 물자가 분배되는 것을 관리하였다.

1947년

5,000명의 성도들이 드레스덴에서 열린 교회 개척자의 날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그것은 독일에서 열린 가장 큰 말일성도 기념식이었다. (스토버 선교부장은 거기에 참석하기 위한 여행 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1952년

6월 23~24일에 데이비드 오 맥케이 대관장이 베를린 대회에서 말씀하였다. 독일 민주 공화국의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1955년

10월 22~24일—헤롤드 엘 그레고리 선교부장은 드레스덴 지부의 100주년 기념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드레스덴 방문을 허락받았다.

1968년

11월 9~10일—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가 독일 민주 공화국을 방문해서 괴릿쯔에서 말씀하였으며 그 나라의 성도들이 교회의 다른 회원들이 누리는 모든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였다.

1969년

6월 15일—몬슨 장로가 드레스덴 선교부를 조직하였으며 그것은 독일 민주 공화국 내의 모든 회원들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그곳에 거주하는 헨리 불크 하르트 형제가 선교부장으로 부름받았다.

1970년

발터 크라우제 형제는 해롤드 비 리 대관장에 의해 드레스덴 선교부의 축복사로 성임받았다.

1975년

4월 27일—드레스덴 근처의 산허리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장로는 독일 민주 공화국의 복음 전파를 위해 헌납 기도를 드렸다.

1977년

8월 24일—스펜서 더블류 킴볼 대관장은 폴란드 여행에서 돌아오면서 독일 민주 공화국을 거쳐 여행하였으며 드레스덴 예배당에서 말씀하였다.

1982년

8월 29일—프라이버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1984년

6월 3일—라이프찌히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1985년

6월 28일—독일 프라이버그 성전이 헌납되었다.

1988년

5월—브리감 영 대학교 공연 그룹인 레이맨 세대가 독일 민주 공화국을 순회하였다.

10월—독일 민주 공화국 정부가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겠다고 발표하였다.

1989년

3월 31일—새로 조직된 독일 민주 공화국 드레스덴 선교부의 선교사들이 국내로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선교 사업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 선교사들이었다.

12월 31일—새로운 선교부는 연말인 1989년 12월 31일에 569명의 침례받은 개종자 수를 보고하였다.

1990년

10월 21일—서 베를린에서 열린 3개 스테이크 대회에서 라이프찌히 스테이크가 나뉘어졌다. 라이프찌히 스테이크의 북쪽 와드와 지부들은 서 베를린 스테이크로 옮겨졌다. 또한 서 베를린 스테이크는 독일 드레스덴 선교부 지역의 일부가 되었으며 서 베를린에서 봉사하는 독일 함부르크 선교부의 선교사들은 독일 드레스덴 선교부로 전근되었다.

텔레비전을 가장 잘 이용하는 방법

제닌 알 플레이크

여러 해 동안 사람들은 텔레비전이 사회와 특히 가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불평해왔다. 그러나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이 그것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안다면 텔레비전은 가치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 가정에 미치는 텔레비전의 영향력이 긍정적인 것이 되도록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몇가지 제언이 있다.

1. 여러분과 가족이 볼 것들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연습을 한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198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 혐오감을 주거나 품위를 저하시키는 것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사회가 타락하여 부도덕한 곳으로 빠지려는 경향을 바꾸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99쪽)

텔레비전을 올바로 이용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는 무엇을 볼 것인가에 대해 제한을 두는 텔레비전 시청 규칙을 가족과 함께 세우는 것이 될 것이다. 어떤 프로그램이 방영되는지 보기 위해 텔레비전을 곧장 켜는 것을 피한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은 TV를 보려고 앉기 전에 마음속으로 프로그램을 선택해 두어야 한다. 여러분이 TV 프로그램의 성격과 내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편성표 및 비평란을 참조한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TV를 끈다.

2. 가족들이 텔레비전 시청에 소요하는 시간을 제한한다. 일 주일 동안 가족의 각 구성원이 TV 시청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으며 또 다른 활동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지 도표를 만든다. 그런 다음 가족끼리 그 결과를 분석한다. 여러분의 관심사 및 변화시킬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 토론한다. 이러한 토론을 하면서 가족이 TV를 켜지 않는 시간을 기록하고 아침 식사전이나 숙제를 끝내기 전, 또는 평일 밤같은 때에 하루에 얼마 동안 TV를 볼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기록한다. 또한 각 어린이가 TV 시청 대신에 할 수 있는 활동 목록을 늘리도록 도와준다.

3. 프로그램이 적절하지 못할 때에는 TV를 끈다. 자녀들이 적절한 프로그램과 적절하지 못한 프로그램을 구별하도록 가르친다. 적절하지 못한 화제와 장면들이 텔레비전에 점점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만일 그러한 요소들이 쇼에 나타난다면 그것을 끈 다음 그러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것이 영적으로 해로운 영향을 준다는 점을 자녀들과 토론한다.

4.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이 훌륭한 프로그램을 시청하도록 격려한다. 만일 부모들이 건전하고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보는 데 우선 순위를 둔다면 자녀들도 흔히 그렇게 하는 것을 배울 것이다. 부모들은 모범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벨라드 장로는 대회 말씀에서 국내 및 전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속보, 여러 지역에 대한

탐사, 역사 공부, 연극, 무용, 음악을 다루는 문화 프로그램과 전세계의 문화를 다루는 프로그램과 같은 긍정적인 프로그램에 관해 말씀하였다. (*성도의 벗*, 1989년 7월호, 97쪽 참조)

자녀들이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을 배우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몇 가지를 들어보도록 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그 프로그램을 유형에 따라 만화, 코미디, 운동 경기, 공상 과학, 뉴스 등등의 범주로 나눈다. 선택의 폭이 다소 좁다면 프로그램 편성표를 함께 검토해서 자녀들이 볼 훌륭한 프로그램의 유형을 늘려줄 몇 가지 프로그램을 제언한다.

5. 자녀들과 함께 TV 프로그램을 보고 토론한다. 많은 사람들이 TV를 일상의 문제에 대해 생각케 하는 어떤 것이 아닌, 그러한 것들로부터 쉬게 하거나 벗어나게 해주는 오락 매체라고만 생각한다. 그러나 한 조사에 따르면 TV를 보면서 어린이를 가르치는 것이 아주 큰 효과가 있으며, 특히 6세에서 12세 사이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에 질의 응답되는 문제들이 프로그램 전후에 토론되는 문제들보다 어린이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

자녀에게 물을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그 이야기가 무엇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본 적이 있니?" "그 인물은 어떤 사람이니?" "그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 거라고 생각하니?" "그 인물과 같은 느낌을 가졌던 적이 있니?"

6. 자녀들이 TV 시청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돕는다. TV를 교육 도구로 사용한다. 예를 들면, 그들에게 극중 인물의 대립이나 결말에 대해 많은 가능한 해결책을 생각해보도록 가르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이 묻는다. "그 인물이 어떤 궁지에 몰렸지?" "그 인물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일들은 무엇이니?" "각 행동의 결말은 무엇이니?" 그런 후 "어느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일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 등을 묻는다.

7. 가치관에 대해 토론한다. TV 프로그램에는 모든 유형의 문제가 다루어져 있다. 묘사되는 가치관이 옳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텔레비전을 끄고 자녀들에게 왜 껐는지 설명해 준다. 보려고 선택한 프로그램에 나오는 인물의 행동이나 그 프로그램의 주제에 관해 토론한다. 이것은 자녀들이 특정한 문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알도록 도와줄 것이며 그들에게 복음의 가치를 가르칠 기회를 줄 것이다. 그들의 견해가 복음과 일치한다면 칭찬해주고 이러한 가치들을 그들의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알도록 돕는다.

8. 폭력물과 맞서 싸운다. 자녀들이 서로 돕고 돌보는 프로그램을 보도록 격려한다. 조사에서는 이러한 유형의 프로그램이 자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그램에서 과도한 폭력이 나타나면 그것을 끄고 자녀와 함께 문제점을 토론한다. "왜 그 인물은 폭력적인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가?" "폭력 없이 어떻게 대립이 해결되어질 수 있을가?" 폭력 장면을 보는 것이 미치는 해로운 영향 뿐만 아니라 폭력의 고통스러운 결말도 분명히 지적한다.

9. TV를 독서로 이끄는 도약대로 삼는다. 자녀들은 호기심을 느낄 때 책을 읽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보도록 격려하며 그후에 프로그램에서 언급된 특별한 주제나 다른 주제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하게 한다.

10. TV에 대한 개인적인 안목을 가진다. TV에 시청할만한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는 때도 있다는 것을 알 만큼 현명해진다. 여가 시간에 TV를 시청하는 대신 여러분과 가족들이 추구할 수 있는 많은 취미와 관심사가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 TV 시청은 여러분이 해야 할 우선 순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것이다. 건설적이지 못한 어떤 것도 좋지 않은 TV 프로그램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 복음의 가치를 입증하고 지지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볼 것을 배운다.

텔레비전은 시청자들에게 강력하고 즉각적인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전해줄 수도 있다.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그램을 비난하기보다는 차라리 자녀들의 분별력을 키워주고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들의 관심을 활용한다. *

사랑-생활 양식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단

고대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선행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필요하고 또 원하는 대로 서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모사이야서 18 : 29) 그들은 그들이 살던 바로 그곳에서 봉사했습니다.

1842년 예언사 요셉 스미스는 나부에 거주하던 자매들이 마을에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도록 초대 상호부조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들의 실질적인 봉사 활동은 그 후 150년 동안 널리 확장되어 지금은 128개 국가와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엘레인 엘 잭 상호 부조회 회장은 오늘날 상호부조회 회원들은 "의로운 군단"으로 대변된다고 말합니다. "상호부조회의 표어인 '사랑은 결코 시들지 않는다'는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992년의 150주년 기념 행사를 인도적인 봉사에 역점을 두어 실시하려고 합니다. 자선 봉사는 우리가 종종 하는 그러한 일은 아니지만 생각하기에 달린 것이고 생활 양식이며 우리가 취할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선 봉사를 어떻게 생활의 자연스런 일부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나누어 줌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지역 사회에서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위스콘신주 밀워키 스테이크 상호부조회 회장인 단 루토우스키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었습니다.

유타주 홀라데이 북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회장인 샤론 캐스텔러 자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대니를 돌본 자매들은 지금 복음의 본질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매들은 사랑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지요."

우리 지역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어떻게 봉사할 수 있을까요?

론 피터슨 그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관리 감독단의 글렌 엘 페이스 감독은 우리가 교회 회원으로서 금식을 함으로써 교회가 그 금식 헌금으로 곤경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모든 회원들은 세계 평화와 지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는 또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사람은 없는지 눈여겨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선 봉사는 우리 이웃이나 지역 사회에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원리를 배운 대로 자선 봉사에 앞장서야 합니다. 할 일을 기다리고 있을 수 만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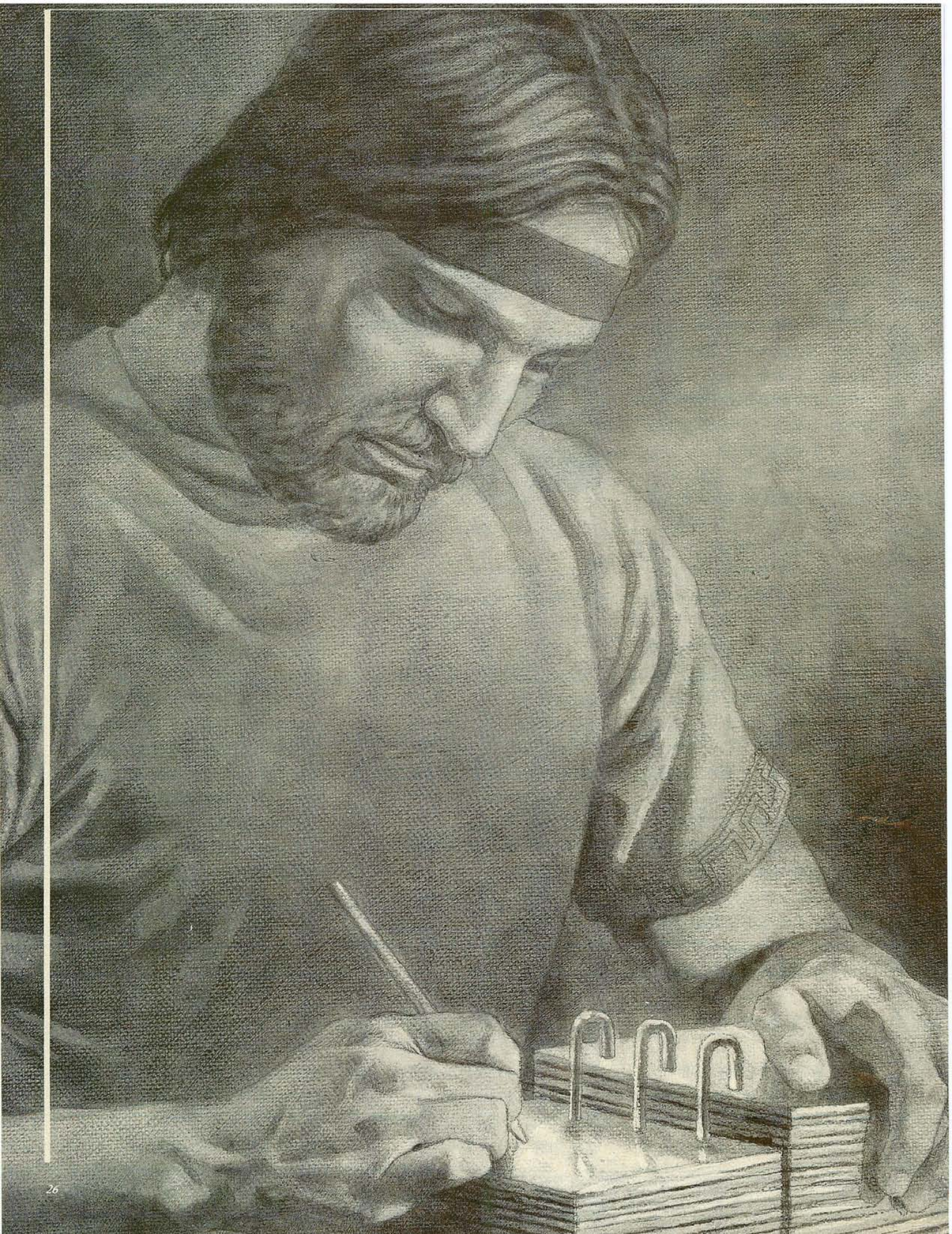
우리는 여러분이 상호부조회 창립 150주년을 기념하는 올해에 우리와 함께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봉사 활동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

자매는 학대받는 아이들을 위해 새로 문을 연 집에 작은 이불이 필요하다는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150여 명의 자매들은 함께 모여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하고 마음을 포근히 해줄 이불 300채를 만들었습니다.

홍콩의 코우룬 스테이크의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그곳의 한 병원이 새 베개와 침대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천을 사서 150개의 베개와 기타 물품을 만들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시라큐스에서 사는 상호부조회의 일곱 자매들은 다른 교회와 민간 단체 여성들과 협력하여 미혼모와 불우한 어머니들을 위한 집을 마련했습니다.

18개월 된 볼리비아 소년인 대니가 다리와 엉덩이 정형 수술을 받기 위해 솔트레이크시티의 어린이 의료원에 이송되어 왔을 때 상호부조회 자매들은 삼 개월간의 회복 기간 동안 그 어린이를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브르스 에이 밴 오덴

니파이이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

주님은 거의 언제나 지상에 그의 말씀과 권세를 세우는 데 도움이 될 증인들을 사용하셨다. 우리의 지상 생활에 대한 그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떨어져 나와 사는 동안 그를 믿고 그의 계명에 순종할 것인지를 보는 것이다.(아브라함서 3 : 25 창조) 브르스 알 맥콩키 장로의 말에 따르면 이 시험에서 우리를 돕기 위해 그는 "자신을 예언자와 의인들에게 드러내 보이신 후 그들이 그의 율법을 가르치고 진리와 신성에 대해 간증하도록 그들을 내어 보내는 데 관한 증인의 율법을 제정하셨다."(*약속된 메시야 : 그리스도의 첫번째 오심*, 솔트레이크시티 : 데저렛 북 출판사, 1978년, 84쪽)

니파이이서에서 니파이는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속하러 오실 것을 증거하기 위해 증인의 율법을 사용하였다. "그리스도의 강림을 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매 나의 영육이 기뻐하노니…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시지 아니하면 만인이 멸망당하리라는 것을 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여 전하매 나의 영육은 기쁘도다."(니파이이서 11 : 4, 6)

니파이는 이사야와 야곱을 명확이 언급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저들의 말씀을 나의 자녀들에게 전하여 내가 전한 말이 진실함을 증거하리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세 사람의 말을 모아 나의 말을 증거하여 이루리라. 또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증인을 보내사 주의 말씀을 입증하시리라."(니파이이서 11 : 2~3) 니파이서는 니파이의 아버지 리하이의 간증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참으로 니파이이서에는 3명 이상의 증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니파이이서에는 역사가 많이 실려 있지 않다. 리하이의 사망과 니파이인들과 레이맨인으로 나뉘어지는 간략한 기사를 제외하면 그 책은 4명의 증인, 즉 리하이, 야곱, 이사야 그리고 니파이 자신이 구속주의 사업에 대해 각자 간증하는 기록이 모여진 것이다. 주님에 대한 간증을 전하는 것이 그들의 주된 목적이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예언하며, 예언에 따라 기록하는 것은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저들이 저들의 죄를 어떻게 사함받는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25 : 26)

이들 네 증인의 주된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메시야가 인류를 개인적으로 또 전체적으로 구속해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 구속은 강림과 재림 모두에 해당된다. 절정의 때에 주님은 그의 속죄와 부활을 통해 인류를 구속하실 것이다. 그런 다음 말일에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에 대한 지식을 회복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을 배도로부터 구속하실 것이다.

구세주에 대한 리하이의 간증
(니파이이서 1 : 1~4 : 12)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과 가르침은 아들인 니파이가 기록한 리하이의 가르침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다. 리하이는 후손들에게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시며, 참된 메시야이신 저들의 주 하나님을 (거역하면) 보라 공의로우신 주님의 심판이 저들을 치시리라"(1 : 10)라고 경고하였다.

속죄에 대한 간증 : 리하이는 그의 아들 야곱에게 주는 가르침에서 "성스러운 메시야로 말미암"은(2 : 6) 구속에 관해 다시 언급했다. 그는 속죄에 대해 배워야 할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세상 사람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함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2 : 8) 이러한 것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야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는 것이다. 메시야는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그것을 다시 취하셨다. (2 : 8 참조) 리하이는 속죄를 설명하기 위해 타락의 영향과 범사에 상대가 있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타락과 범사에 짝이 있는 것 때문에 인간은 자유 의지를 가지게 되었다. (2 : 15~16 참조) 메시야의 구속 덕분에 인간은 선과 악을 알며 자유와 영생을 선택할 수 있다. (2 : 26~27 참조)

회복에 대한 간증 : 막내 아들 요셉에게 주는 가르침에서 리하이는 말일에 있을 주님의 구속 사업으로 이야기의 방향을 돌렸다.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던 조상인 요셉의 예언을 인용하였다. 주님은 요셉이라는 똑같은 이름을 가진 한 선견자를 일으키실 것을 약속하셨는데 요셉은 후손들에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주님의 성약에 대한 지식을 전해 줄 것이었다. (3 : 7, 15절 참조) 더욱이 주님은 그 선견자에게 힘을 주셔서 요셉의 고대 후손들의 말을 마치 티끌에서 부르짖는 것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3 : 11~12, 19~21 참조) 그 말씀은 오늘날 몰몬경을 통해 세상에 다시 나왔으며 니파이이서에도 다시 그 후손들 중 이미 죽고 없지만 여전히 이것에 대해 말해 주는 세 사람인 리하이, 야곱, 니파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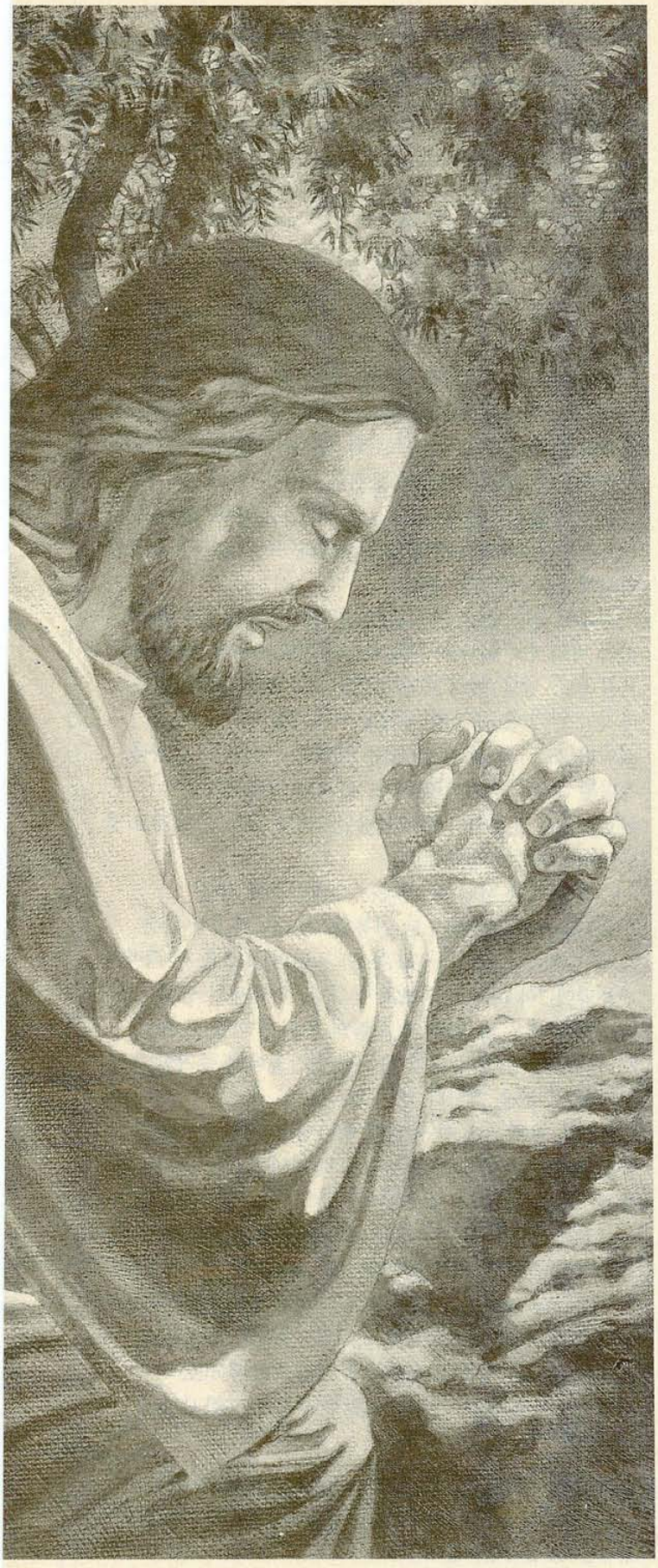
리하이의 작별의 간증은 그의 후손들이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며 끝날에는 축복받게 되리라는 주님의 약속에 대한 것이었다. (4 : 5~9 참조) 이 회복의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그 축복의 성취를 목격하고 있는 것이다.

구세주에 대한 야곱의 간증
(니파이이서 6, 9, 10장)

야곱은 주님과 그 백성들과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말하였다. 그는 경전—이 경우에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쳤다. (6 : 5~7, 16~18; 7 : 1~8 : 25 참조) 야곱의 말씀에 대해 니파이가 기록한 것은 이틀에 걸쳐 어떤 종류의 집회, 아마 종교적인 축제에서 가르쳐졌던 것으로 보인다.

회복에 대한 간증 : 야곱은 니파이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과 주님의 참된 백성들은 메시야의 강림과 재림을 고대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6 : 5, 13~14 참조) 그는 주님께서 결국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상속의 땅으로 모으실 것이며 그곳에서 그들이 "구속주를 알게 될"(6 : 11) 것을 약속하였다. 야곱은 이 약속을 이사야서에서 인용한 장문의 예언을 통해 설명하였다. (8장 참조) 그는 주님이 이사야에게 하셨던 다음의 질문도 인용하였다. "나의 손길이 미흡하여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며, 내게 권세가 없어 너희를 구하지 못하겠느냐?"(7 : 2) 물론 그 대답은 아니오이며 이스라엘은 확신을 갖고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지라 내가 부끄러워 하지 아니하였음이요."(7 : 7)라고 말할 수 있다. 야곱은 성약의 백성들이 "참된 교회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우리 안에 회복"(9 : 2) 되리라고 말하였다. 두번째 날에 야곱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저들의 구속주를 참되게 알게 하는 자에게로 나아"(10 : 2)올 이스라엘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고 간증하였다. 그들에게 이 지식이 전해지는 것은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오랜 분산에서 약속된 상속의 땅으로 모으심을 통해서이다. (10 : 7, 10~11절, 18~19절 참조)

속죄에 대한 간증 : 야곱은 백성들의 영적인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증하였다. 달리 말하면 그들의 "육신은 누워… 다시는 일어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영은 저와 같은 악마가 되며 …하나님의 면전에서 내어 쫓"길 것이었다. (9 : 7, 9절) 그러나 주님은 죽음이요 지옥인 음흉한 괴물에게서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그의 백성을 구속해 주셨다. (9 : 10, 19절 참조) 주님의 속죄와 부활은 만인의 부활을 가져올 것이며 그들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심판대 앞으로 데려갈 것이다. (9 : 12~15 참조)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거하도록 구원받도록 회개하고 침례받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가지라고 명하셨다. (9 : 25 참조) 야곱의 마지막 간구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세로 너희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며 속죄의 능력으로 영원한 죽음에서 일으키사, 너희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게… 하시기를 기원하노라."(10 : 25)



니파이이서에서 증인들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버리시고 그것을 다시 취하실 메시야의 공덕과 자비와 은혜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다고 가르쳤다

구세주에 대한 이사야의 간증

(니파이이서 7~8장, 12~24장, 27장)

니파이는 메시야의 오심과 마지막 날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속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함으로써 구속주에 대한 리하이와 야곱 그리고 그 자신의 간증들을 강화해 주었다. 니파이는 그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저들을 온전히 하고자 이사야 예언자가 기록하신 것을 저들에게 읽어 주었으니"(니파이일서 19 : 23) 한 학자는 몰몬경의 이사야 인용 성구 425개 중에서 391개의 구절이 어떤 면으로든 선교 사업과 구세주의 속성을 다루고 있다고 말하였다. (몬트 에스 니맨, "이사야가 전한 말씀이 위대함이라." 솔트레이크시티 : 북 크래프트사, 1980년, 7쪽 참조)

회복에 대한 간증 : 주님에 대한 이사야의 간증은 확실하며 정확했다. 그는 이스라엘의 기쁨에 찬 미래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그는 거듭하여 과거에 이스라엘이 행한 불손종과 범법을 미래의 이스라엘의 구속과 대비하여 말하였다. (니파이이서 13~14장 참조) 그는 만백성이 평화와 의로운 심판을 위해 이스라엘을 의지할 날이 오리라고 선포하였다. (12 : 2~4 참조) 그렇게 하기 위해 주님은 먼저 그의 손을 펴서 이스라엘의 잔류민을 회복하실 것이며 여러 나라를 향하여 깃발을 세우실 것이다. (21 : 11~12 참조) 주님은 매우 훌륭한 한 종을 부르실 것이며, 영은 그에게 지혜와 이해력, 권고와 권세 및 지식을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종이 집합의 기를 세우는 일은 궁극적으로 복천년을 맞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21 : 1~10 참조)

속죄에 대한 간증 : 주님의 첫번째 오심에 대한 표적은 한 처녀가 잉태하여 그 아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하는 임마누엘이라고 부르는 것이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어긋나는 구속주의 탄생은 "이스라엘의 두 백성에게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다. (니파이이서 18 :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탄생은 어둠에 처한 백성들에게 크나큰 빛이 될 것이다. 그분은

평화스럽고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이며 그분의 통치는 끝이 없을 것이다. (19 : 2, 6~7 참조)

니파이가 인용한 여러 장 가운데 속죄에 대한 이사야의 간증은 말일에 있을 이스라엘의 구속과 연관된다. 주님의 재림을 전후한 사건에 대한 그의 시현 가운데에는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어 버리시며"(14 : 4) "죄악이 제하여졌고"(14 : 4) 등 그가 언급한 부분이 포함된다. 니파이는 이사야의 예언을 그의 백성이 이해하기란 어렵지만 그 예언은 매우 귀중하다는 점을 알았으므로 니파이이서 끝부분의 장들에서 자신의 예언을 사용하여 이사야의 예언을 설명하였다. 니파이는 또한 이사야의 예언이 장래의 독자들에게 얼마나 귀중할 것인지 잘 알고 있었다.

"[나는]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이 극히 소중하게 될 것을 앎이며, 마지막 날에 이 말씀을 저들이 깨닫게 될 것을 앎이라. 저들의 유익을 위하여 내가 이를 기록하노라."(25 : 8)

구세주에 대한 니파이의 간증

(니파이이서 11, 25~26, 28~33장)

리하이와 야곱과 이사야의 간증을 전한 후, 니파이는 "나 스스로의 예언을 전하노니"(25 : 7)라고 기록했다. 다른 사람들이 간증한 방식에 따라 니파이는 구세주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실 것이며 말일에는 이스라엘이 구속될 것임을 예언했다. 다른 세 명의 증인들은 그들 자신의 방식대로 자신의 예언을 전하였으며 니파이 또한 그렇게 하였다. 그의 예언의 특징은 아무도 잘못 알아들을 수 없도록 간결하였다. (25 : 4~7절 참조)

속죄에 대한 간증 : 니파이는 다음 예언으로 구세주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시작하였다. "저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박을 것이나, 무덤에 뉘인지 사흘만에 그의 회복의 능력으로 죽음에서 일어 서시리니, 그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왕국에 구원받으리라."(25 : 13) 니파이는 또한 니파이인들이 포함된 구세주의 지상 성역까지 언급하여 주님이 그들을 방문하여 상한 곳을 낫게 하시고 그들이 세 세대동안 평화를 누리리라고 약속하였다. (26 : 9 참조) 니파이는 또한 그가 "그리스도 교리"(31 : 2)라고 부른 구원으로 이끌 좁은 길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하였다. 그리스도의 제자는 침례받고 성신을 받음으로써 하나님 아들의 모범을 따라야 한다. 그 후 그들은 희망과 사랑을 지니고 힘차게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실 끝까지 견뎌야 한다. (31 : 5~20)

회복에 대한 간증 : 니파이는 주님이 "다시 손을 들어 잃어 버려지고 타락된 상태에서 두번째로 주의 백성들을 회복하실" 날을 미리 보았다. (25 : 17)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실 것이며(26 : 12~14 참조) 모든 사람들—"검거나 희거나 속박된 자거나 자유인이거나, 남자나 여자이거나 이교도[나] 유대인이거나 이방인이거나 모두"그에게로 올 수 있다. (26 : 33 참조)

그의 위대한 사업 중 하나는 고대인들에 의해 기록되었으나 부분적으로 인봉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계시인 책이다. (27 : 6~10 참조) 증인의 율법은 이 책에도 적용되어 "아무도 이를 보지 못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책을 전달받은 자 외에 세 사람의 증인이 이를 보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의 말씀을 인간들에게 증거할 몇몇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27 : 12~13)

증인의 율법은 또한 말일에 하나님에 대한 간증에도 적용된다. "두 민족의 간증이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에게 증거… 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29 : 8) 성경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못하므로 주님은 몰몬경을 출현시켜서 그의 말씀을 확정하실 것이다. (29 : 3~7, 12~13 참조)

니파이의 말대로 주님은 영적인 것의 증거 없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것이다. 주님은 성신의 증거를 포함하여 많은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우리도 니파이이서에 있는 간증에 우리의 간증을 포함시킬 수 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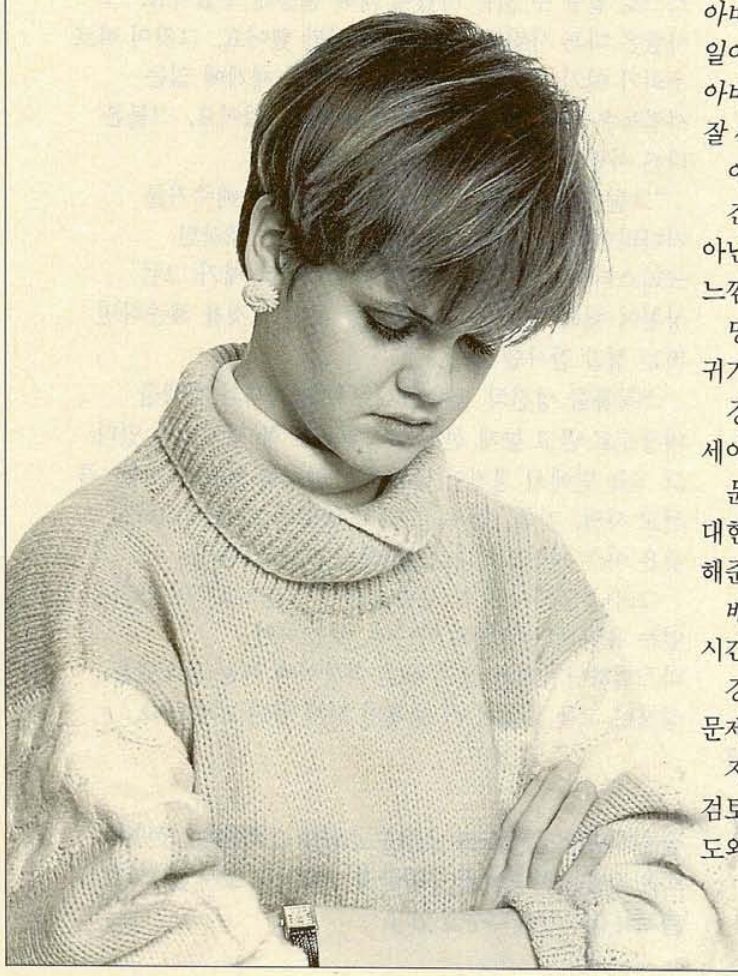
브르스 에이 밴 오덴 형제는 유타주 프로보 소재 브리감 영 대학교의 교회사 부교수이며 브리감 영 대학교 제2 스테이크의 고등 평의원으로 봉사하고 있다.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은 특별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고 느낀 적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주고 싶어하신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그가 여러분을 얼마나 염려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싶어하신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와 연락할 필요가 있으며 또 그의 응답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기도는 여러분과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아주 개인적인 형태의 의사 소통이다. 주님의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마태복음 6 : 9~13 참조) 몇 가지 기본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

1.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9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로 시작한다.



제드 클라크 사진

2.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그분께 감사하고 있음을 아시도록 한다. 그리스도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9~10절)라고 말씀하셨다.

3. 그분께 여러분의 필요 사항을 도와주시기를 구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11절)라는 그리스도 의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것이 선한 것임을 보여준다.

4. 죄와 잘못과 약점에 대해 용서를 구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12절)

5. 겸손과 감사와 경배로 기도를 마친다. 그리스도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13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도를 마치셨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것이 가능해졌으므로 그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다.

물론 기도는 더 많은 것을 포함할 수도 있고 또는 긴급한 때에는 더 간단해질 수도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와 어떻게 의사를 소통해야 할지 모른다면 기도하기 위한 도움을 구하도록 한다.

응답을 기다린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실 기회를 드렸는가? 무릎을 펴고 일어나기 전에 귀를 기울이도록 한다.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를 바라시는 지시를 더욱 잘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에 효과적인 기도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이 있다.

진실된 표현 : 기도는 암기한 것을 되풀이 말하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느낌을 표현하는 진실된 시간이다.

명상 : 기도에는 경건과 심사숙고, 그리고 영의 영향력에 귀기울이는 것이 포함된다.

경배 : 기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의 축복을 세어보며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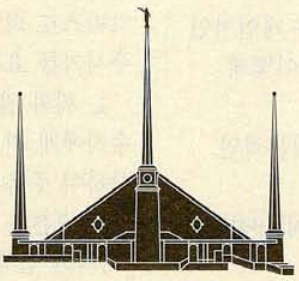
문제의 해결 :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문제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고 그것에 대한 영원한 관점을 얻게 해준다.

배움 : 기도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해력을 밝혀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다.

강화 : 기도는 여러분이 옳은 것을 선택하고 어려운 문제와 마주서도록 여러분에게 힘을 줄 수 있다.

자기 평가 : 기도를 통해 주님은 여러분이 자신의 발전을 검토해 보고 약점을 드러내어 그것들을 장점으로 바꾸도록 도와주실 수 있다. *

영 원



리차드 엠 롬니

스칸디나비아 전역에서 말일성도 청소년들은 결코 끝이 없을 축복을 나누기를 열망하며 모이고 있다.

여기의 숲은 고요하고 평온하며 특별히 저녁에는 더욱 그렇다. 서늘한 산들바람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처럼 소나무 숲 속에서 살랑거리며 불어왔다. 이 작은 숲은 마치 항상 신성한 장소였던 것처럼 삼림 속의 개척지가 제공해 준 세상으로부터의 도피처 같이 보인다.

여기 모인 청남 청녀들은 숲과 같이 평화롭지만 경건하게 보인다. 그들은 조용한 음조로 그러나 즐겁게 말한다. 그들은 주님의 집인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여러 시간을 보냈다.

"성전 안에 있으면 깨끗하고 행복한 느낌이 듭니다." 16살인 토르 안드레 에락의 말이다.

17살인 릴리안 닐슨도 동의한다. "성전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의 영 때문에 더 강한 간증을 가지게 됩니다."라고 그녀는 말한다. "죽은 자를 위해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은 *누군가를 위해* 그것들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가질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교회 회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효과적인 방법으로 선교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말일성도 청소년 그룹은 노르웨이 오슬로 스테이크의 오슬로 제2와드에서 왔다. 그러나 그들은 핀란드의 먼 성에서, 또는 덴마크의 항구 도시가 번화한 스톡홀름 시내에서 오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속도로를 통해 단시간에 올 수 있다. 실제로 청소년들은 북극 전역으로부터 이곳에 온다.

"이번이 두번째 여행이예요." 12살 난 샬롯데 마리에 룬드크비스트의 말이다. "지난번에 우리는 스테이크에서 모두 함께 왔어요. 저는 그때 45명을 위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 다음 우리는 성전장님의 집으로 가서 노변의 모임을 가졌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중풍에 걸려 스스로 일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서 행하는 일이예요. 영의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해야만 해요."

"그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 이 일을 해주기를 기다리면서 지켜보고 있는지도 몰라요." 13살인 크리스티나 아르스네스의 말이다. "만약 제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누군가가 저를 위해 그것을 해준다면 저는 정말 감사할 거예요."

스톡홀름 성전의 첨탑은 나무들의 녹색과 갈색을 배경으로 곧고 높게 선명한 흰색으로 쭉 뻗쳐올라 있다. 그 그늘 안에서 경전이 말해주는 것처럼 영원한 것들, 즉 선교 사업, 가족, 약속, 그리고 영원에 대해 얘기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다. (교리와성약 79 : 1 참조)

그러나 멀리서 오는 사람들만이 성전으로부터 유익을 얻는 유일한 사람들은 아니다. 소도시인 바스텔하닌지에서 성전 바로 가까이에 사는 청소년은 성전이 그들 사회에 큰 축복이 되어 왔다고 말한다.

샬롯데 마리에 룬드크비스트는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에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수행한 후 성전장인 조지 담스테르 형제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성전에 오는 청소년들은 그들이 중요한 어떤 것, 영원히 지속될 어떤 것의 일부가 됨을 안다.

"저는 버스를 타고 성전에 갑니다."라고 17살인 로이 구나르손은 말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이 헌납되기 전에 그곳을 다녀갔습니다. 저는 지금도 거의 매일 사람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조차도 그것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의 거의 공통적인 반응은 '와, 굉장히 아름다운 건물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제가 그것이 무엇인지 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많이 알고 싶어합니다. '저것은 교회입니까?' '거기서 무엇을 하지요?' 그것은 구원을 계획을 설명하기에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제게는 성전이 끊임없이 복음을 상기시켜 주는 곳이예요. 우리 와드 건물은 같은 장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와드 활동을 하러 가면 우리는 항상 성전 가까이에 있게 돼요. 때때로 우리는 성전 결혼을 하고 나오는 부부들을 봅니다. 성전이 나타내주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성전 주변에 있을 수 있겠어요?" 16살인 세실리아 옌센의 말이다.

그렇다. 그것은 그 의미를 강하게 상기시켜주며 그것에 내포된 복음의 영은 널리 퍼진다. 여러분이 바스텔하닌지 와드의 엥만 감독님과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면 청소년의 활동률이 거의 100퍼센트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 와드에서는 현재 6명이 복음 선교사로 나가 있으며 또 "우리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들이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다. 12명의 세미나리 학생들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아침 6시 30분에 예배당에서 만난다.

같은 건물을 사용하는 한덴 와드의 청소년 그룹도 똑같이 훌륭하다.

아주 많은 성전 봉사자들이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바스텔하닌지에서의 말일성도들의 존재는 강력하다. 말일성도는 인구의 1.4퍼센트를 구성하는데 이것은 지방 자치, 공영 주택군, 정치적 그룹에서 그들에게 영향력을 부여해준다. 많은 말일성도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유일한 몰몬으로 있지 않고 반에 두 세명의 회원 친구들을 갖고 있다. 선생님들은 교회의 표준을 알고는 말일성도 이상에 대해 편견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나 그 지역에 성전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몰몬을 잘 알아보게 하는 것 이상의 일을 한다.

"이곳에 성전이 있으니까 안전한 느낌이 듭니다." 14살인 소피아 시부라의 말이다. "그것은 일상적인 문제들을 초월하도록 저를 고양시켜주며 제게 영원에 대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저는 성전을 보면서 언젠가 거기에서 결혼하게 될 것을 생각해요." 16살인 아니카 리트미르의 말이다. "저는 여러분이 성전에서 맺은 약속은 주님과 맺은 약속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이 성전에서 배운 것들은 바뀌거나 소멸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성전 안에 있는 것이 좋아요."라고 15살인 다비드 예르함마는 말한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쉴 수 있으며 경전을 읽고 또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편안한 느낌이 존재합니다."

바스텔하닌지에서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예배당에서 5분 거리 이내에 살기 때문에 그들이 모이는 것은 쉽다. 거의 매 금요일 밤마다 와드에는 십대 청소년들이 많이 모인다. 때때로 성전에 들어가거나 나오는, 다른

패트릭 발크는 스톡홀름 성전에서 일하는 것을 즐길 뿐만 아니라 선교 사업 비용을 벌기도 한다.

지역에서 온 청소년 회원들을 만나는 기회도 있다.

"저는 괴테보르그에서 온 아이들이 우리와 함께 춤추는 것을 아주 좋아해요." 16살인 파울 엥만의 말이다. "그러나 주님의 집에서 그렇게 많은 청소년들을 볼 수 있는 것을 더욱 좋아해요. 그것은 교회가 강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성전장인 조지 담스테트 형제는 성전에 참석하는 충실한 청소년들에 대해 얘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한다. 어떤 청소년은 거기에 오기 위해 오랫동안 여행하기도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유스호스텔에 단체로 묵는다. 대부분 집으로 가기 전에 최소한 두 번의 침례식 모임에 참석한다.

"한 번은 핀란드에서 온 청소년들이 탄 버스 안으로 들어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죠."라고 담스테트 성전장은 회상한다. "그들이 '난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자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가사를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 영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은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전에 오는 이 청소년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중요한 어떤 것, 영원히 지속될 어떤 것의 일부가 됨을 압니다."

담스테트 성전장은 이제 밖으로 나왔다. 그는 저녁 날씨가 차고 산들바람이 서늘한 이곳 숲속에서 오슬로로부터 온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금 서늘하네요."라고 17살인 유리 카리네 렌네순드가 말한다. "그렇지만 마음속은 아직도 따뜻해요."

여기 모인 다른 청소년들처럼 유리도 그것이 사라지지 않을 따뜻함인 것을 안다. *

관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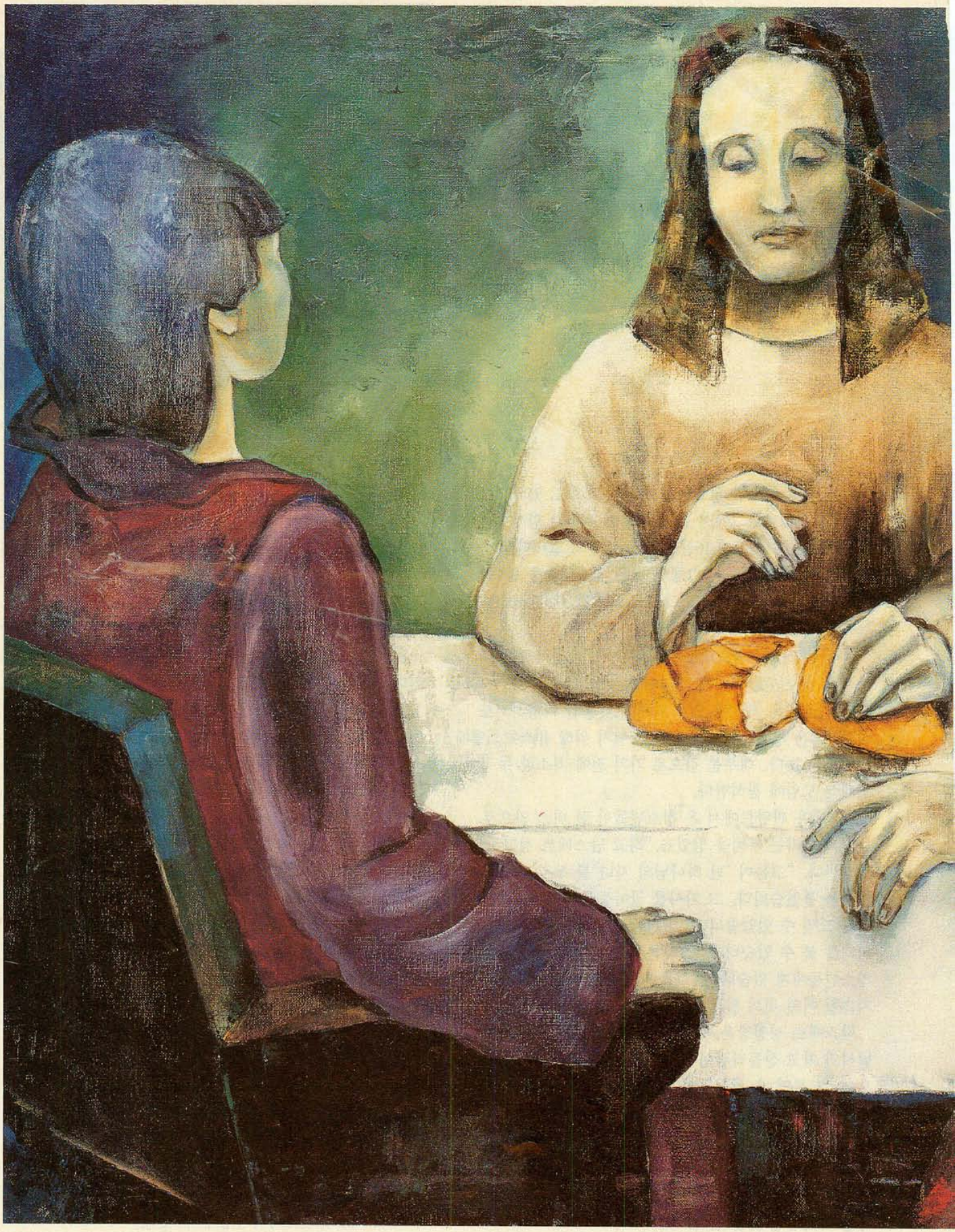
많은 청소년들이 선교 사업 경비를 마련할 방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패트릭 발크는 그가 "일하기에 이상적인 장소"라고 부르게 된 곳을 찾았다.

한덴 와드의 새로 성임된 장로인 18살의 패트릭은 스톡홀름 성전의 관리인이자 견습 정원사이다. 현재 그는 4년 동안 잔디를 깎고 나무와 관목을 손질하고 꽃을 돌보며 관리 책임자가 지시하는 모든 일을 해왔다.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닙니다."라고 패트릭은 말한다. "그곳은 제게 비회원 친구들과 여행자들에게 말할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저는 그들에게 몰몬경을 줍니다. 저는 이 정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정원이 멋있게 보이도록 노력합니다."

패트릭은 "이곳에는 항상 평온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일하기에 아주 훌륭한 장소라고 말한다. 그는 스웨덴의 청소년들 사이에 일어나는 종교에 대한 새로운 관심을 주목하며 선교 사업을 열망하고 그와 같은 관심이 다른 어떤 곳에서 커지고 있다면 찾아내겠다고 말한다. *

편집자 노트 : 이 기사가 쓰여진 후 패트릭은 부름을 받아 현재 아이다호주 보이스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경전에서 주제를 얻음

제2차 국제 예술 경진 대회

글렌 엠 레오날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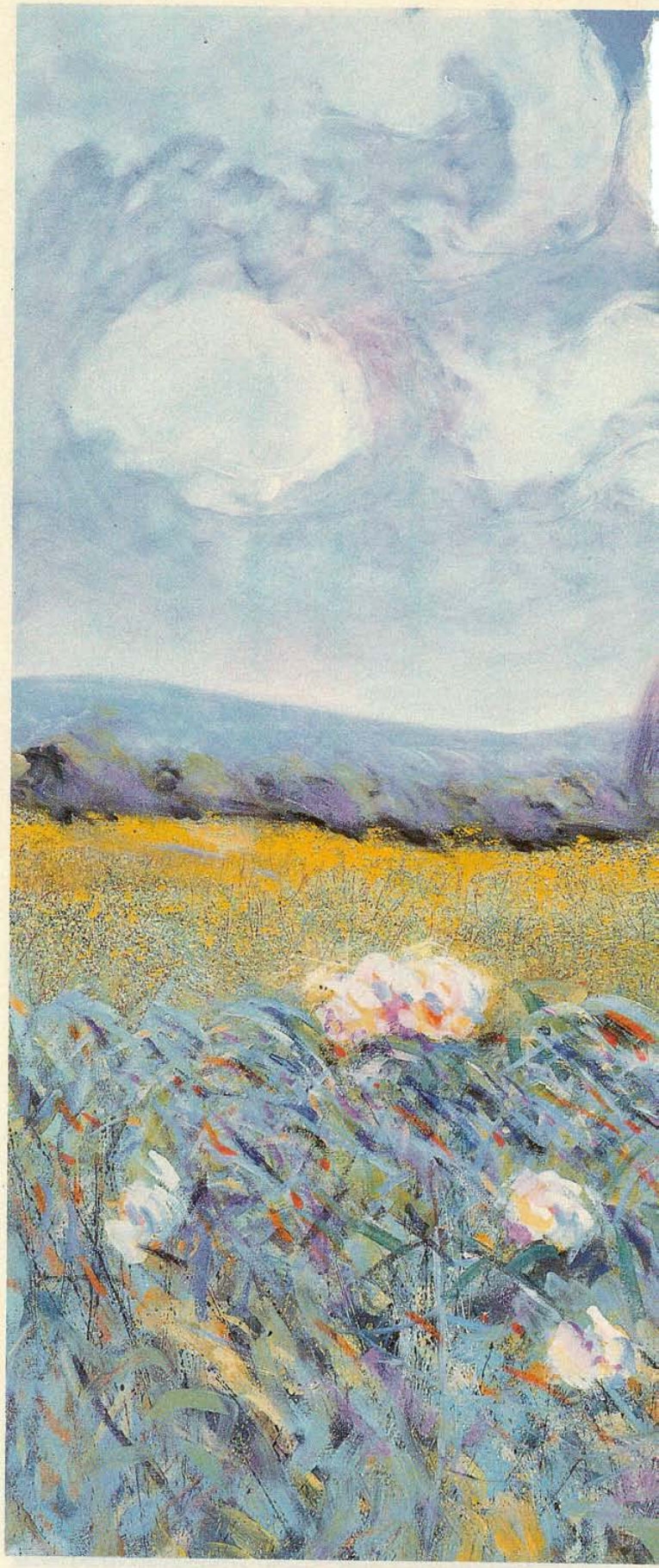
경전의 이야기를 그린 유화, 훌륭하게 세공된 도자기,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주제를 따온 자수, 전세계적인 신권을 묘사한 누비 등, 이러한 작품들은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의 후원으로 열린 제2차 국제 예술 경진 대회에 나온 다양한 참가 작품이다.

42개국에 있는 800명 이상의 말일성도 예술가들은 경전에 담긴 주제를 묘사한 작품을 만들어달라고 1990년 2월에 박물관이 한 요청에 호응하였다. 그들은 영감을 얻기 위해 표준 경전을 살펴보았다. 그런 후 예술 양식과 그 매체에 변경을 가하여 경전의 주제를 근거로 하는 매력적인 작품들을 창조하였다.

6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솔트레이크시티 박물관에 전시될 약 200점의 등록 작품들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에 20명의 입상자가 상금과 익명의 기증자들이 제공한 여러 가지 부상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전시회에서는 경험이 풍부한 예술가들의 작품 뿐만 아니라 재능있는 초심자들의 작품도 4개 박물관의 화랑에 전시될 것이다. 모든 대륙의 문화적인 전통을 대표하는 예술 양식이 포함되었다. 심사 위원들은 제출된 예술 작품의 높은 수준과 말일성도들의 경전에 나오는 사람들과 근본 원리, 그리고 이야기 및 메시지를 표현하는 예술가들의 독창성에 기쁨을 표하였다.

"우리는 4년 전의 제1차 경진 대회 이래로 예술적 수준이 점차 향상되는 것과 종교적인 개념을 독창적으로 다뤄보려는 성실한 노력이 담긴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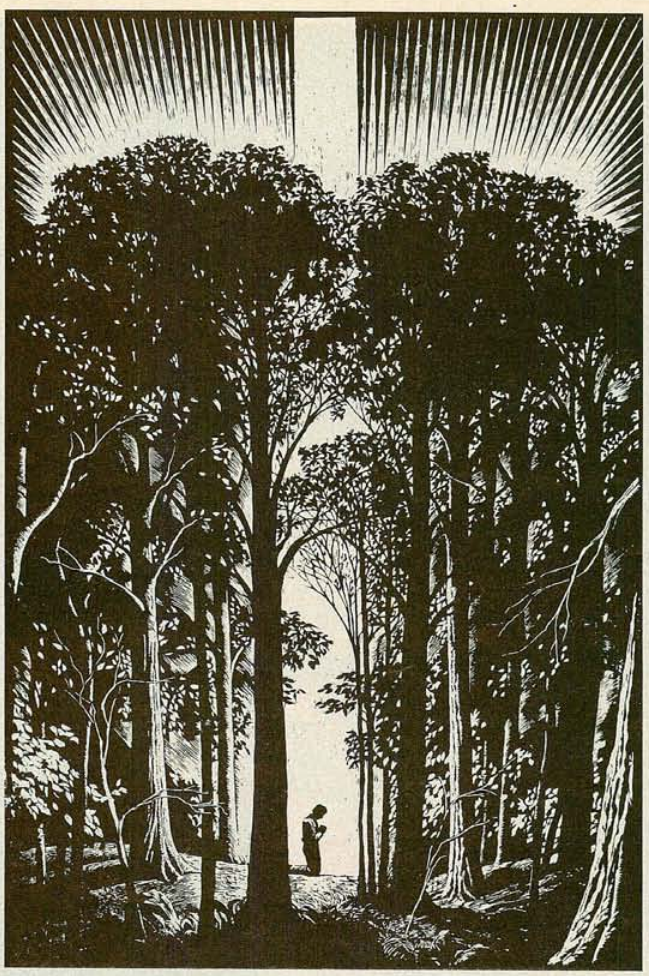
엠마오에서의 제자들, 캔바스에 알키드 수지와 유화
마리 프랑스 기니 그림, 프랑스 이제르, 비비아



(위)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목판 부조 세바스티오 도리바우 로드리기즈의 조각 브라질, 상 파울루
(오른쪽) 아뭄 페투 :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캔버스에 유화와 아크릴, 호세 알 리베로스 그림, 칠레, 산티아고

그 박물관의 관장이자 심사 위원중 한 명인 로버트 데이비스가 말했다. "참가 작품을 제출한 예술가들은 각기 다른 문화적 전통 출신이지만 그들은 공통적인 복음의 배경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그림과 조각에서, 누비, 자수, 도자기 및 다른 예술적 노력에서 보여집니다."

참여한 많은 예술가들이 복음 원리, 즉 기도, 침례, 봉사, 평안 그리고 진리 등에 대한 자신의 간증을 표현하기 위해 작품을 창조함으로써 그 도전을 받아들였다. 예술가 중 일부는 천지창조, 아담과 이브의 에덴 동산 추방, 요셉의 채색 옷, 욥의 시련, 에스더 이야기, 최후의 만찬, 겟세마네에서의 구세주의 고통 및 요한 계시록과 같은 성경의 이야기와 사건들에 관심을 보였다. 또 다른 예술가들은 몰몬경을 살펴보고



(왼쪽) 아론과 금송아지, 스벤 스펠스바리의 자수
스웨덴, 스톡홀름
첫번째 시현, 종이 위에 리놀륨 인각,
워렌 룩, 유타주, 솔트레이크시티

리아호나, 림하이 백성, 자유의 깃발, 니파이 백성을 방문한 그리스도, 그리고 금판을 가진 모로나이와 같은 주제를 선택하였다. 현대의 경전은 첫번째 시현, 몰몬경의 출현, 선교 사업,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리고 개척자들의 이주와 같은 주제에 영감을 주었다.

"우리는 예술가들이 그들의 작품을 경전의 주제를 다룬 것과 훌륭한 예술적 성취도를 보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심사받았음을 알아주기 바랍니다."라고 심사 위원이자 박물관의 예술품 관리자인 리차드 오만은 말했다. "우리는 인도네시아의 납결포는 납결포에 적용되는 예술적 기준으로, 칠레의 유화는 라틴 아메리카의 회화 기준으로, 또 유타의 누비는 누비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저는 몰몬입니다"라고 말

예세니아 메네세스 파야

나는 페루의 치클라요시에 있는 특수 학교 입학 시험을 위해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해왔다. 나는 그곳의 초등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나의 음악과 춤에 대한 재능을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데 사용하는 것을 배우고 싶었다. 실제로 나는 그렇게 결심하였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3개월의 휴가를 그 시험을 준비하는 데 썼다.

치클라요에 있는 모든 훌륭한 학교가 그렇듯이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 학교도 카톨릭 교회 계열이었다. 그러나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이 학교는 이미 이전에 다섯살 난 내 남동생을 받아 주었다. 그래서 나와 어머니는 내가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회원이지만 입학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마침내 입학 시험일이 되어서 나는 어린이들과 함께 노래하고 활동하며 춤추는 실기 시험을 치렀다.

후에 심사 위원단과 개인 면접을 할 시간이 되었을 때 나는 그 방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드렸다. 세 명의 심사 위원이 나의 재능과 배경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였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치클라요 시립 발레단 소속이었으며 피아노의 12과정을 수료했고 또 민속 무용단인 마리네라와 위노에서 최고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말해 주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내가 어떤 교회에 속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저는 몰몬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심사 위원들이 깜짝 놀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평안함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카톨릭 교도가 아닌 누구도 입학을 허용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물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심을 알고 있으며 그러므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했다. 나는 내 자유 의지로 그것을 믿고 있으며 내가 진리를 선택하였음을 안다고 말함으로써 결론을 맺었다.

그들은 나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종교 때문에 절대로 입학할 수 없다고 말하고 나에게 내가 말한 것 때문에 갈등을 느끼지 않는지 물었다. 나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사도 바울의 말씀이 떠올랐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로마서 1 : 16) 그런 다음 그들은 나에게 그 방을 떠나도 좋다고 말하였다.

나의 모든 꿈이 정면에서 산산히 부서진 것같이 보였다. 나는 이 기회를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 왔는가와 내가 그것을 성취하도록 돕기 위해 어머니가 희생해 오셨던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에 대한 나의 간증은 강하였다. 나는 그것이 학교에 입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있다는 것을 알았다.

집에 도착해서 일어났던 일에 대해 어머니께 말씀드리자 어머니는 학교로 찾아갔다. 어머니는 부교장에게 나의 어린 남동생이 등록하도록 허용받았는데 왜 나는 입학할 자격이 없는지를 물었다. 부교장은 5살인 루이스 엔리케는 그가 믿는 것에 대해 책임이 없지만 16살인 나는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 다음에 나의 어머니는 심사 위원들에게 이야기하였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녀는 1983년에 회원이 된 이후로 우리가 겪었던 몇 가지 경험과 그 결과로 우리 가정에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였다. 심사 위원들은 그녀에게 "걱정마십시오. 이것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어머니는 집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나에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금식을 시작하자고 제안하였다.

그날 오후 늦게 우리는 내가 실기 시험에 합격하였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나는 다음날의 필기 시험을 통과해야 했다.

나는 밤새도록 공부하였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시험장으로 가기 전에 나는 커다란 신앙을 갖고 기도하였다. 시험은 쉬워보였다. 나는 시험지를 가장 먼저 제출한 학생 중 한 명이었다. 그런 다음 나는 어머니하고 숙모와 함께 있기 위해 재빨리 집으로 왔다. 우리는 오후 내내 시간이 지나도록 그래서 결과가 빨리 제시되기를 기다렸다.

그날 저녁, 나는 결과를 보려고 학교로 가는 도중에 계속 기도했다. 그곳에 도착해서 나는 합격자 명단을 샅샅이 읽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금식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은 훌륭한 일입니다

현재 나는 새로운 학교에 부지런히 따라가고 있지만 항상 경전은 들고 다닌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는 마태복음 5장 16절이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나는 간증을 결코 숨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이전보다 더 잘 안다. 나는 항상 자랑스럽게 "저는 몰몬입니다"라고 말 할 것이다. *

빈민굴에서의 기도

데비 펄스

1964년 10월 26일 자마이카 킹스톤에 쌍둥이의 출생이 공식적으로 등록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인생의 출발이었습니다. 저는 부모가 누군지도 몰랐으며 할머니가 저를 키웠습니다. 방이 하나 있던 빈민굴의 통나무집이 제가 태어나 처음 살았던 집이라고 기억됩니다. 빈민굴의 혹독한 가난 속에서 자라면서 저는 할머니가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는지 실감하였습니다. 할머니는 다섯 식구가 같이 쓰는 헌 누더기 침대에서 매일 아침 다섯시면 일어나곤 하였습니다. 우리들이 깬 후에 할머니는 우리들에게 벽돌을 구해오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모아온 벽돌로 할머니는 화덕을 만들어 빵을 구워 이웃들에게 팔았습니다. 매일 매일 살아가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고생이었지만 늘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행복해 보였습니다.

많은 다른 집들과 결합되어 있는 우리 통나무집에는 수도물이 없었습니다. 그 구역 안에는 수도관이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서 물을 양동이로 길어 날랐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물을 나르기 위하여 머리에 물 양동이를 이고 다녔습니다. 수도관 주변은 질퍽질퍽한 풀밭으로 둘러 싸여 있었는데 그곳은 어린이들의 놀이터로 사용되었습니다. 빈민굴 어린이들은 대개 옷을 입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는 보통 발가벗은 몸에 진흙투성이가 되어 놉니다. 화장실과 목욕탕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울안 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적고 돈이 없는 많은 이웃 사람들은 그 도피처로 부도덕하게 생활하였습니다. 이것은 빈민굴을 높은 인구 밀도로 혼잡하게 만들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식량을 정부에 의존했습니다. 그들은 좋은 옷을 갖거나 다른 물질적인 소유욕을 채우기 위하여 자주 도둑질을 하였습니다.

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길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때 제 친구의 어머니는 겨우 14살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전철을 밟아 제 친구도 13살에 첫 아기를 낳아서 그녀의 어머니를 27살에 할머니가 되게 하였습니다. 제 친구는 19살에 세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친구는 19살에 세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제 친구는 세번째 남자 친구와 헤어진 후 어머니의 집으로 이사하여 어머니의 여섯 아이에다 그녀의 세 아이를 보태어 살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스무 살도 되기 전에 7살 미만의 아홉 아이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저는 제 친구의 인생을 보면서 제가 좀더 나은 어떤 것을 원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가정과 가족을 원했습니다. 저는 이 빈민굴을 떠나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할머니는 저에게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느 분에게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그분은 어떤 분이며,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마치 저는 빛이 없는 어둡고 황량한 세상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수수께끼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기로 결정을 하고 저는 그 당시 우리가 속해 있던 교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할머니가 그곳에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더욱 혼란시켰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에 대하여 그분들은 하나님에게 속하여 하나님과 함께 한 분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저는 많은 다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성경과 그리스도의 생애를 공부할 때 저는 특별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느낌이 그리스도와 성경과 성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어떤 것임을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저는 기도하기 시작했으며 주님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동안 좋은 느낌을 받을 수 있었을지라도 그런 느낌을 줄곧 지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한 교사가 저에게 그러한 느낌을 간직하는 길은 침례를 받는 것이라고 해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은 것 같아 보였으므로 저는 집에서 혼자 공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참된 길을 찾게 해 달라고 주님에게 열렬히 기도했습니다. 그분은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한 청년을 만났고 우리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열 달 동안 우리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하여 의견과 생각을 나누었지만 결코 종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저의 친구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보고 그에게 교회에 다니는지 그리고 다는 교회의 이름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무슨 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라는 이름이 좀 긴 교회였습니다. 저는 조금도 흥미가 없었습니다. 저에게는 다른 교회와 다를 바 없는 것 같았습니다.

후에 제 친구는 다른 나라에서 이년간 주님께 봉사하러 간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목사가 되려나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에 저는 그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궁금하여 그 예배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그 교회를 찾았으며 또한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예배당의 문을 지나 걸어가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기쁨, 화평, 위안, 확신, 그리고 행복 모든 것이 포함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의문이 풀렸습니다.

교회의 회원들은 저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그들의 환영이 부담스럽게 느껴져 환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별로 마음 내키지 않았습니다. 또한 저는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알건 모르건 간에 저를 환영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때 저에게 평온이 깃들었으며 마음속에서는 이런 속삭임이 들려 왔습니다. "데비, 이곳이 네가 찾던 곳이고 이 사람들이 네가 찾던 사람들이란다." 회상해 보면 빈민굴에서의 저의 생활은 비참했으며,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더욱 비참하고 힘들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서는 거의 발전할 수 있는 기회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언가 가치 있는 삶을 원했습니다. 제가 가족과 빈민굴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만났을 때 저는 이것이 저에게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소녀들은 결코 이 빈민굴을 떠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도 제 마음의 소망과 위에서 저를 인도하시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없었다면 그곳을 더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빈민굴을 떠날 수 있는 기회를 받았고 교회 회원으로 침례를 받게 되었으며 교육을 받을 수 있었고 선교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던 그러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상황을 알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

사람을 낚는 어부

교회 역사 및 예술 박물관 주최 제2회 국제 미전에 출품된 8백여 이상 작품 중의 하나 유화 말일성도 선교사들을 묘사.
오스트레일리아, 브리스 베인 거주 메리 안 라이트 작. 36쪽 "경전에서 주제를 얻음" 참조

너희가 반드시 주시리라 믿으며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을 아버지께 나의 이름으로 구하면, 보라 너희에게 주시리라. "너희의 가족과 더불어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여 너희의 처와 자녀들이 복받게 하라." (니파이삼서 18 : 20~21)

31쪽 "기도하는 방법" 참조